— i —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24 1981년9월21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September 21, 1981

SEP 25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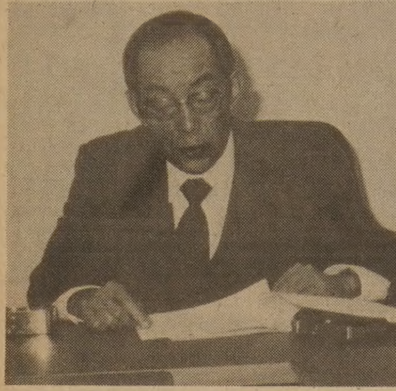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북한방문 묵인 않는다"
총영사관서 또 경고


◇기자회견에서 성명발표하는 이상훈 총영사

이상훈 토론토주재 한국총영사는 15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북한방문을 경고하고 교민들이 북한당국및 이곳 동조자들의 허위 기만전술에 현옥되지 말기를 당부했다.

일부 캐나다교포들의 북한방문 사례가 늘고 북한동조자들의 유혹이 심해지자 이를 강력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한 이총영사는 "정부는 교민들의 북한방문을 묵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토에서는 친북한 강연회가 가끔 열렸고 가족을 찾거나 관광명목의 북한방문 권유선전문이 돌았으며, 최근 이곳에 온 일부 모국 국회의원들은 교민들의 북한방문을 용인하는 듯한 개인발언을 해서 총영사관은 북한방문 사조의 전파를 크게 우려해왔다.

이 총영사는 이날 [illegible] 한들을 교민사회의 중요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본 한국일보 토론토지는 지난 8월27일자에서 봉두완 민정당대변인과 정희채의원등이 토론토에서 밝힌 북한방문에 관한 발언을 보도, 총영사관측은 북괴나 그 앞잡이들이 봉의원의 개인발언을 마치 한국정부 정책이 변경된 것처럼 선전, 이용할 것을 염려했었다.

이총영사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공해상에서 미군정찰기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휴전선 일대에서 전례없는 악랄한 대남비방 방송을 계속할 뿐 아니라, 장시간 총격을 가해오는등 남북관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북괴는 제5공화국이 반한인사의 입국규제시책을 해제하고 있는데 자극받아 조총련, 한민통등 반한단체를 통한 교민사회 침투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들은 가족방문·학술회의·스포츠 교류등 명분을 내세워 방북초청하거나, 심지어는 관광단 모집등 온갖 기만술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교민들께 몇가지 당부를 드리려 한다.

①한국은 6.25후 30년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준전시 상황인 초긴장상태에 놓여있다. 북괴는 남북대화, 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리측의 인도적인 이산가족 찾기, 남북비방 중지등 모든 건설적인 제의를 거부해 왔다.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고려연방제」도 이같은 야욕달성을 위한 책동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②따라서 그들의 고위가족방문, 학술회의, 스포츠, 관광등 명목을 내세운 교민방북 권유에 넘어가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북괴의 정치선전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③우리는 모두가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할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자중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과거 북한방문한 일이 있는 교민의 입국을 허용한 것은 제5공화국의 출범을 계기로 과거사를 묻지 않고 새시대 건설에 내국인·재외교민 모두가 단결하여 참여토록 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교민의 북한방문을 묵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대다수 교민은 북괴의 얕은 술책에 넘어갈리 없겠으나 혹시 극소수 교민의 행동이 전체 교민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어 이곳 주재 총영사로서 교민의 이해를 촉구한다.

도매상서 담배 사기사건
「오버·차지」하는 사례도 있어

토론토경찰은 버라이어티 상점과도매상 사이에벌어진 약 1만9천달러 담배 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스테이너·에비뉴의「말리·마켓」주인 니콜라·비안니치씨는 11일 식료품 도매상 UBA에 전화로 담배를주문, 잠시후 UBA로부터 담배가 준비됐다는 전화를받고 현금 9,000달러를 챙겨 UBA(Prescott Ave)로 달려갔다.

비안니치씨는 UBA창고앞에서 이 전화를 해주었던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영수증을 받은후 창고로 담배를 가지러 갔다.

그러나 이 영수증은 가짜였음이 판명됐다.

경찰은 이번사건을 주시, 지난번에도 같은 UBA스카보로 지점에서 한 한국인 상점주인이 이와 비슷한방법으로 1만달러를 사기 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포실업인 Y씨는 과거 5년간 UBA에서 물건을 살때 그들이 오버·차지한 것을 9번이나 발견하여 크레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의 계산기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약 2주전 한국인 고객은 UBA에서 180달러를 더부담 시킨것을 발견, 추후 환불받았다.

UBA는 한국 인 상점주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매상중의 하나이다. "만일 이같은 과잉「차지」가 반복 발생했다면 한국인사회 전체로서는 큰 손실을 본 셈이된다."고 한 교포 실업인은 말했다.

세계 건설계 주름잡는 한국
심각한 문제 당면

(뉴욕17일=연합)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국제 건설업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고 경제신문「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지가 17일자 보도했다.

동지는 근면한 노동력과 저임금의 장점을 가진 한국은 세계31개국에서 공사청부를 맡고있으며 일예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약10만명의 한국인 건설노동자가 있다.

동 저널은 또 다수의 한국토건업회사들은 일년 판매실적이 50% 이상 성장하고, 4개회사는 세계굴지의 토건회사들의 대열에 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망은 순탄치만은 않다. 한국의 성공에 자극에 받은 다른 아시아국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유동성있는 중동시장이 투명치 않다고「미국 매일경제」(The U.S. Economic Daily)지가 보도했다.

KAL事故原因 합동調査

<마닐라 UPI> 항공관계자들은 16일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사 소속 제트기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사 대변인은 동, 항공사 관계자들이 15일 활주로를 이륙하지 못한채 고속도로로 미끄러져 나간 보잉 747기의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필리핀 항공조사관들과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상자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기장 김영선(45세)씨에 의하면 그의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시속 1백50노트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는 이륙직전 왼쪽에 있는 안쪽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 급히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한다.

한국도 컴퓨터 시대
현재 475대 보대

(서울18일=연합) 한국경영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6월말 현재 한국은 1억2천9백만달러에 달하는 475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었다.

이중 32대는 초대형, 46대의 대형 100대의 중형, 118대의 소형 그리고 나머지 179대는 초미니 형이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79년 한해동안 4천6백5십만달러를 컴퓨터 렌트와 유지비에 썼다.

◀ 금주의 행사 ▶

(9월21일-27)

◇24일(목) 하오7시, 캐나다 외환은행 개점 자축회
한인회관(20 Mobile Dr.)
연락처 : 364-2890

◇26일(토) 하오12시30분, 고교대항 골프대회
Rolling Hills Golf Club
연락처 : 964-3644(Mr. 홍)
493-1602(Mr. 조)

〃 씨알 한국인학교 개강
Deer Park Public School(23 Ferndale Av.)
연락처 : 441-2986

〃 YMCA토론토한글학교및 영어교실 개강
Bickford Park고교3층
연락처 : 536-1166(Mr. 김)

[편집자주 : 본사는 교민사회의 행사를 매주 월요일자에 종합게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행사를 간접지원키로 했읍니다. 종교단체의 정기적 종교집회는 본란에서 제외됩니다. 본란게재를 희망하시는 행사주관자는 전화 533-2361 김종환기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23명 사망 100여명 중경상
폭발물차 폭발 팔레스타인 본부 근처

(베이루트) 폭탄을 실은 자동차가 17일밤 시돈항근처의 팔레스타인 게릴라본부 근처에서 폭발, 23명의 시민들을 폭사시키고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좌파는 군사관계자 합동회담에서 즉각 성명을 발표, 폭발사고의 원인은 이스라엘에 있다면서 이스라엘 국경에서의 7주간정적을 깨고 다시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레바논 우파지도자들은 그들이 이 폭발사고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약 90kg의 폭발물을 실은 자동차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좌파지도자들의 합동군사회담이 열리기 15분전에 폭발했다.

17밤 자정까지 시돈항근처 병원들의 집계에 의하면 23명이 죽고 100명이상이 중경상환자가 치료받고 있다.

이번 폭발로 6개의 빌딩이 해를 입었고 십여대의 자동차가 불타 버렸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사상자들은 일반시민이 대부분이였다고 말했다. 18일 현재 게릴라지도자가 사상당했다는 소식은 없었다.

팔레스타인 본부는 사고원인에 대해 일절함구, 공식적 사망자수에나 명단은 알 수 없다.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좌파본부는 특별성명을 통해 "이번행위야말로 이스라엘의 침략적 야욕을 버리지 않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는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맹공했다.

이스라엘군사 관리들은 최근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신군사무기를 도입 레바논·이스라엘 국경지방에 설치했다고 비난했었다.

◇폭발사고로 폐허가된 팔레스타인 게릴라 본부(시돈, 레바논 소재) 앞에서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고있다. 이 사 고로 23명이 사망했다.

북괴고문단 常駐비판
짐바브웨편집장 解任

〈솔·바비, 살리스버리-UPI〉 짐바브웨정부 대변인은 16일 북한의 군사고문단의 상주를 비판한 한 신문편집의 사설을 「반동적」이고 국가이익에 반대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을 실은「움탈리포스트」지의 전·마이트랜드·스튜아트 편집장은 지난 8월11일 이 사설을 비난하는 정부각료들의 일련의 모임끝에 해임됐다.

그런데 북한은 짐바비 동부 국경지대인 움탈리의 북쪽 인양가산에 이미 훈련기지를 설치했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강 하 수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DIPPER DAN
ICE CREAM SHOPPES

DIPPER DAN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이스크림회사로서 일본·미국등 350개의 Franchise가게를 갖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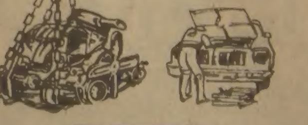
당신은 우리 회사에 20,000달러의 돈을 투자함으므써 아이스크림 비즈네스에 성공을 기약 할 수 있읍니다

더 이상의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675-8930으로 전화하십시요

(MR.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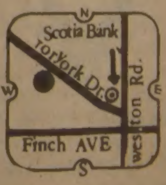
DIPPER DAN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ARIO
TEL. 675-8930

NORTH YORK AUTO BODY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송 대 헌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5-SW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슈가·레이 건재

헌스에 14회 TKO승

(라스베가스)16일밤 이곳 시저스·팔레스에서 거행된 1천5백만달러의 대전료가붙는 세계웰터급 권투통합챔피온 결정전에서WBC챔피온 슈가레이·레오나드가WBA챔피온 토마스·헌스를 14TKO로 물리치고 통합챔피온이 됐다.

13회전에 이미 두번이나 로프다운을 당했던 헌스는 14회에들어 방어력을 잃고 일방적 펀치를허용, 주심데비·피얼씨가 레오나드의TKO(Technical Knockout)승을 선언했다.

작은 알리라 불리우는레오나드 경기초반 링위를빙빙돌면서 펀치를 헌스얼굴에 작렬시켰다.

경기중반에들어 전세는 역전, 슈가레이는 왼쪽눈을 맞아 안보일 정도로 감겼다.

그러나 레오나드는 후반들어 자기보다 신장이큰헌스의 옆구리를 강타, 종종 헌스의턱에 어퍼커트를 올려부치며 맹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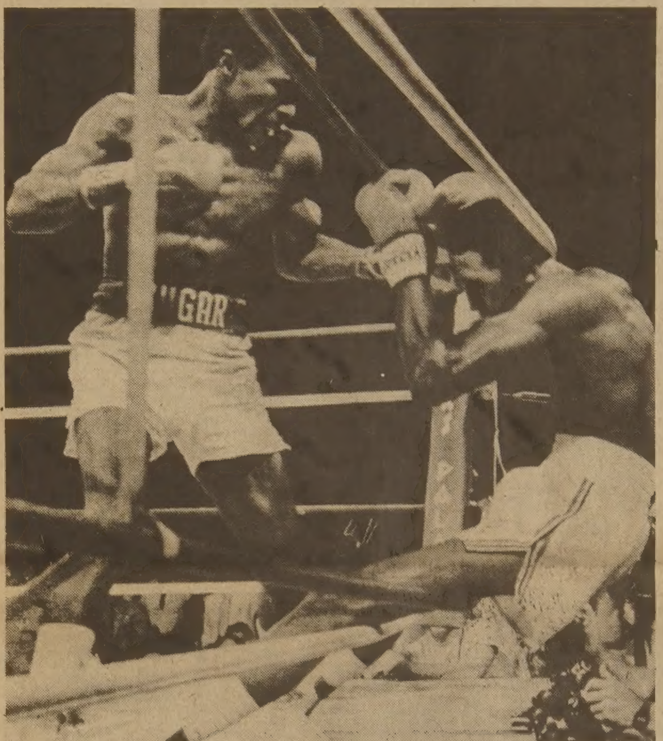
이번 대전에서 천만달러의 대전료를 받은 레오나드는 이로써 75년 호세·나폴르스이래 최초의 67kg급 웰터급 통합챔피온이 됐다.

경기가 끝난직후 3 심판들의 채점표는 각각 2, 3, 4점의차이로 헌스의 우세를 나타냈다. 만약 레오나드의 TKO승이 아니었다면이번 경기는 헌스의 판정승으로 끝났을 것이다.

경기가끝난 30분후 헌스와가진 인터뷰에서 헌스는"슈가레이에게 강타를몇번 얻어맞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치명타는 아니었다. 나는 충분히 경기를 계속할수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헌스와 레오나드의 재대결은 아직 공식적으로 체결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이 많다.

헌스는 이 대전으로 5백만달러를 받았다.



◇레오나드가 헌스를 맹공, 로프다운시키고 있다. 슈가레이는 이 경기에서 14회 TKO승을하여 WBC, WBA통합 웰터급 챔피온이 되었다.

캐나다 금리 계속 하강

몰개지협상 재무부, 금융계

연방정부 알란·맥케큰 재무부 장관은 다음 주 24일(목) 주요 금융기관 대표들과 만나 몰개지 이자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기로 했다.

맥케큰의 발표는 17일 캐나다중앙은행이 대부이자율을 현재 20.18%에서 0.5% 내린 19.67%로 신용도가 높은 사업가 고객들에게 주는 우대금리를 0.5% 낮은 21.25%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춘 것이다.

이러한 계속적인 금리의 인하는 미국은행의 금리인하와 보조를 맞추는 미국은행의 금리인하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미환율은 계속 강세를 보여 17일 미화1달러당 83.07센트에서 83.28 센트로 인상됐다.

현재 두 주요금융업계가 몰개지 갱신문제에 대비하여 「이자지불연기」안을 채택하기나발표했다.

17일 로얄은행이 발표한 계획은 몰개지 갱신으로 인상된 월부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소유자에게 지불연기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로얄은행은 계획에 따르면 채무자들은 현재 년20.75%의 이자율 대신 월18%의 이자를 지불한다. 이것은 5만달러의 몰개지에 대하여 약 백달러의 월부지불액을 줄이는 것이나 몰게지에대한 원금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프라임 레이트를 인하 15일 美 주요은행들이

〈뉴욕—UPI〉시티뱅크, 모건 개런티트러스트, 매뉴팩처러스등 주요 은행들이 15일 프라임 레이트(우대금리)를 20.5%에서 20%로 인하했다.

이보다 앞서 체이스 맨하탄, 크로커, 유니온,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뱅크등도 이미 우대금리를 20%로 인하한바 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성적 자극 문제등

광고윤리 대두

구디스씨는 15일(화)「토론토 광고 판매클럽」의 회합에서 "어린아이들을 무분별하고 양심없이 성의대상으로 삼는 광고를 볼때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즈음 북미「메스·메디아」를 통행 범람하는 성의 퇴폐풍조에 경악하고 분노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구디스는 배세되어야 할 도색적 광고의 예로 현재 한창 인기정상을 달리는 10대 인기 영화배우「브룩·쉴즈」가 청바지 광고 모델로 미국 TV에 방영되는 것을 들었다.

청바지 디자이너 칼빈·큐라인을 위한 광고에서 쉴즈는 "나와 칼빈 청바지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쉴즈의 육체가 성의 대상으로 사용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토론토에 광고대행업체를 갖고 있고, 캐나다에서 가장 큰 광고회사의 하나인 맥라른·인터마트·광고회사의 부회장을 지냈던 구디스씨는 2천2백만달러의 광고거래를 하고 있으나 상품을 팔기위해 어린이들의 성(sex)을 이용한 광고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 윤리위원회」(The Advertising Standarb Coauncil)과 「캐나다 광고자문위원회」(The Cauadiau Advertising Advisory Board)는 그러한 도색광고가 어느정도 침투하었나 시급히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12살이나 13살의 어린소녀들을 성(sex)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도발적 광고는 캐나다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캐나다 권위의 광고업자 제리·구디스가 말했다.

◇청바지 광고 모델인기 영화배우「브룩·쉴즈」

한국人口 世界서 22번째

UN報告書 서울8백50萬으로 15大도시

한국은 81년 현재 인구가 3천8백90만으로 세계에서 2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최신 UN보고서가 밝혔다.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공으로 9억8천5백만명이나 되며 미국은 2억2천9백80만명으로 소련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인구는 8백50만으로 세계 15대 도시의 위치에 올라있다.

세계 최대의 도시는 뉴욕과 북부 뉴저지주를 합친 지역으로 웬만한 국가규모를 능가하는 2천40만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다.

2위는 동경과 요코하마지역으로 2천만명이 살고 있으며 LA·롱비치지역은 1천1백70만으로 상하이에 이어 6위에 머물고 있다.

UN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세계인구는 45억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1.73%(9천만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산업국가들의 연평균 인구성장율은 고작 0.6%에 불과하나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가들의 2.1%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이 세계 인구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율은 1백30년후에 가면 제로상태로 떨어지게되어 지구인구 1백5억 명 선에서 인구팽창이 멈출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80년 현재 평균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남자의 경우 일본으로 72.7세이며 여자는 스웨덴의 77.9세이다.

남자 2위는 스웨덴(72.3)이며 미국은 69.1세로 카나다(70.1)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자 2위는 77.4세의 일본이며 카나다와 미국인 똑같이 77.0세로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에디오피아는 남자의 경우 불과 37.5세 여자는 40.6세 밖에 살지못해 이들 국가의 거의 절반 밖에 미치지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및 주요도시의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단위:백만)

중공(9백85) 인도(6백88) 소련(2백68) 미국(2백30) 인도네시아(1백49) 브라질(1백21) 일본(1백18) 방글라데시(93) 파키스탄(89) 나이제리아(80) 멕시코(69) 서독(61) 이탈리아(57) 영국(56) 베트남(55) 프랑스(54) 필리핀(49) 태국(49) 터키(46) 이집트(44) 이란(40) 한국(39) 스페인(38) 폴랜드(36) 버마(35) 에디오피아(34) 자이레(30) 남아프리카(29) 알젠티나(28) 콜롬비아(28)

주간女性

월레스 세번째 결혼

조지 월레스 전알라바마 주지사는 컨트리 뮤직 싱거 리자 테일러(32세)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2년 대통령선거 캠페인을 벌이던 중 총에 맞아 하반신불수가 된 금년 62세의 월레스씨는 세번째 결혼을 한 것이며 새 부인 리자 테일러양도 한번 결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5살짜리 아들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中共新聞 언어 淨化운동

人民日報, "淫亂·저속한 言語몰아내자"

▲중공은 언어정화작업이 한창이다. 사진은 대학입시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이 거부된 학생이 항의문을 써들고 있다.

중공에서는 언어의 정화운동이 한창이다. 중공의 신문들은 연일 지면을 통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부터 표준어를 사용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인민일보는 1면 사설을 통해『지금 단정치 못한 저속한 언어와 글씨가 심각한 문제로 사회에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도자들의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들이 점잖은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민일보는『이제는 저속한 언어를 정화하는 단계를 지나 중국어의 순화및 표준화 운동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과학과 기술의 발달및 정치·경제·군사면에서의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전국민의 표준어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8가지의 중요한 방언을 비롯, 수많은 사투리가

중공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방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어인·만다린어 사용을 권장하고 복잡한 한자의 간편화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어는 널리 보급되지 못했으며 학교에서까지도 이점이 시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공공방송국이나 TV에서도 심한 사투리가 그대로 튀어나오고 있다.

신문들은 1950년대에는 표준어 사용운동이 많은 효과

TV放送도 8가지方言 마구써 淨化운동

표준어 使用권장…指導層의 솔선수범촉구

이 신문은 또 자신들이 쓰는 기사에도 문법에 맞지않거나 조리가 닿지않는 일들이 가끔있다는 점을 시인하며 이를 항의하는 편지를 그때마다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공의 이같은 언어순화운동은 이미 몇달전 부터 전개되어 오고 있는데 음탕하고 저속한 언어를 소탕하는 것이 일차 목표이다. 신문들은 이러한 저속한 언어들이야 말로 국가를 무되게 하는 것이라며 만화까지 동원해서

있어 다른지방 사람과의 대화에는 통역이 필요한 중공에서 아 목표는 너무나 이상적인것일 수 밖에 없다.

문화혁명을 일으켜 중공에 비극을 초래했다는 죄목으로 지난해 재판을 받게된 4인방의 재판때 중공의 방언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그당시 피고인들이 심한 방언을 썼기 때문에 법정은 이를 통역하는 통역사를 출두시켜야했던 것이다.

를 보아는데 문화혁명이 이 운동에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에 방언은 물론 저속한 언어가 판을치고 세력을 떨쳤다는 것이다. 그때는 수많은 정치적 비판이나 구호가 판을 쳤는데 이것이 문제의 온상이 된 셈이다.

광동지방같은 곳에서는 표준어의 사용을 위해 방송에서 만다린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아직 두고봐야 할 것 같다.〈AP〉

정기이사회 소집공고

회칙 제13조 1항에 의거 81년도 제 4 차 정기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공고합니다.

일 시: 1981년 9월 25일(금요일) 오후 7 시30분
장 소: 협 회 사 무 실
20 Mobile Drive Toronto
안 건: 1. 업무및 재정보고
2. 각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3. 총회 준비의 건
4. 기 타

1981년 9월 14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사장 김 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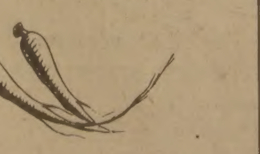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薬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 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OPEN : WEDNESDAY
CLOSE : TUESDAY
* 영업시간 : 9 : 00AM~9 : 00PM
977-8858~9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일본스테이크 집

Kabuki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
스페샬점심시간
11 : 45AM~2 : 30PM
5 : 00PM~11 : 00PM
토요일 :
5 : 00PM~11 : 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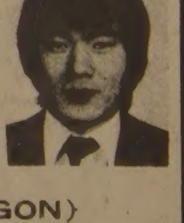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In a class by itself"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Reservations accepted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GM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각종 웨곤(WAGON)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MASH」프로에 교포입김 작용

한국문화등 왜곡보도에 교포자문위 구성키로

【LA지사】 문화와 역사를 다루는 TV연속극이 사실과 다르게 각색되고 있어 교포들이 참가하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CBS-TV의 인기 연속물 「MASH」프로에 한국관계 장면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포들이 관계 영화제작소에 서면 항의를 벌인 끝에 제작진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는 것이다.

전쟁시 긴급 수술차량에서 코믹한 장면을 다루는 MASH는 10년간 2백20여편이 방영됐는데 한국관계가 50편이 었다.

이가운데 한국인이 월남모자를 쓰거나 중국고유의 의상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롯 잘못 묘사된 장면이 허다해 교포들의 항의를 받았었다.

동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 보트 맷칼피씨는 지난11일 안마태 신부등 LA지역 관계 교포들과 만나 자문위를 7월초에 구성키로 합의했다.

해외걸작만화

"Their romance had a tragic ending—marriage."

『로맨스는 비극으로 끝났어。결혼말야』

神들의 對決

새 映画

그리스 로마신화를 읽을때 느껴지던 신비와 꿈꾸듯한 쾌감은 어디로 갔는가. 「CLASH OF THE TITANS (신들의 대결)」의 화면에서 어린시절 동경의 대상을 찾아보려다 진부함과 엉성함과 실망만 안고 나왔다.

바람둥이 제우스(로렌스·올리비에)가 아고스의 공주와 사랑을 속삭이다 낳은 아들 페르세우스(헤리·햄린)가 대노한 할아버지에의해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영화는 페르시우스가 전지전능한 아버지의 지원으로 온갖 괴물을 다 물리치고 아름다운 페니키아의 공주 안드로메다(주디·바우커)를 아내로 삼게 된다는 것으로 끝난다. 특수효과의 귀재 레이·해리허슨이 만든 하늘을 나는 백마 페가서스, 바다의 거대한 괴물 크라컨, 쌍두의 늑대 디오스킬로스 그리고 바라보면 돌이 되어버리는 독사머리칼을 가진 메듀사등이 총출동하지만 이들은 해리허슨이 20여년전

▲주인공 페르세우스(해리·햄린扮)와 암몬(버게스·메레디스扮)은 하늘을 나는 백마 페가서스를 잡는데 성공한다.

神話속의 온갖怪物등장하는 兒童오락用

만든「제이슨과 아고너즈」에 나오는 괴물보다도 더 엉성해 움직일때마다 삐거덕소리가 난다. 여기에 황금올빼미 「부보」까지 곁들여 신화에 「스타·워스」를 접목, 장난감들이 판을치는 잡탕을 만들어 놓았다. 결코 신의 아들이나 왕자처럼 생기지 않은 햄린과 예쁜 인형의 범위를 못벗어난 바우커의 신통치못한 연기가 관객을 더욱 난처하게 하고, 특수효과의 진가를 볼수있는 이런류의 영화에서 그것이 난파함으로써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연기야 어쨋든 백만불짜리 스타들인 매기·스미스가 바다의 여신 테티스로 어슐라·안드레스가 미의 신 아프로디테로 그리고 고전이 된 클레어·블룸이 제우스의 아내 헤라로 잠깐 얼굴을 내밀고 명우 버저스·머레디스도 나온다. 완전 아동용으로 감독은 데스먼드·데이비소. 등급PG. US사작품.

해바라기서 콩이나온다

위스컨신大연구팀「해콩」改良에 성공

위스컨신대학 농학교수들로 구성된 종자개량연구반들이 해바라기씨에 콩유전인자를 이식시켜 새로운 종류의 콩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30일 블럭 농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밝혔다.

블록장관은 이날 위스컨대학 종자개량연구반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새로운 콩의경작이 대량화되기만 한다면 분명히 농경혁명이 올것이라고 말했다.

존 캠프, 티모디홀 두농학박사가 주관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해에 관계없이 도시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자라는 해바라기씨에 콩의 단백질세포를 이식시켜 해바라기씨를 콩알만큼 키울수 있다는것.

콩의 단백질세포를 해바라기씨에 이식한 「해콩」을 성공적으로 키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해콩이 번식력이 없다는것.

우선 이식성장이 예정대로 성공하면 번식력있는 종자를 다시 만들어낼 예정에 있다.

캠프, 홀 두농학박사는 당초 농작물열매에 하얀피부병같은 병이 유전적으로 발생하는것에 착안, 이 피부병균대신 다른 유전인자를 이식할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집중연구를 해왔던 것이다.

[...] 이 연구반들은 콩의 [...]유전자를 해바라기 [...]데 성공한것.

[...]라기는 땅의 질소[...] 흡수하지 않는데다 공중의 질소를 흡수하여 씨를맺는것이 특징.

대신 콩은 성장과 경중 많은 질소비료를 주어야 튼튼한 열매를 맺는다.

때문에 「해콩」재배가 성공하면 비료를 특별히 안주어도 될뿐아니라 공해가 심한 도시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재배할 수 있어 이중 효과를 낼수있게된다.

블록농무장관은 현재 시험재배중인 「해콩」의 확대재배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실현된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㊷

팔리·모왓 원작, 현 재 훈 옮김

우리 아버지 시대에 우리 이할미우트 사람들은우리의 창과활을 백인들의총으로 바꾸었고, 나의 어린시절에는 이 총으로 우리가 필요할때는 언제든지고기를 얻을수가 있었으며, 옛날의 생활방식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기는 했어도 이땅에서 생활하는것은 즐거운 일이였었지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실탄이 떨어지고는 했는데 나는그 이유를 알수가 없었오. 백인들이 처음으로 우리들이 살고있는 근처에 왔을때그들은 총의장점을 이야기해 주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었지요

그들은 우리들에게 와서 사슴을 잡아먹고 사는 옛날생활방식을 버리고 그대신 흰여우를 잡도록 말했어요. 우리들은 그들이 원하는대로 한동안 행동했고 모두들 생활이 풍부해 졌읍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사람들처럼 훌륭한 여우 사냥꾼이 되었고, 여우를 어떻게 잡을수있는지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아버지 시대에 했던것처럼 툭투를 사냥하는법은 전혀 몰랐고, 총과 실탄만 있으면 그것을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 지요 그런데 너무자주 실탄을 구할수가 없었고, 그 이유를 설명할수가 없었다고요. 백인들이 원하는대로 나는 아직도 많은 여우를 잡았고, 남쪽에 있는 나무로지은 이글루로 털을갖고 내려가면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없고, 힉킥(다람쥐)만이 우리를 맞아 주곤 했지요.

이런일이 당신이 이땅에 오기전에 수없이 일어났었고, 나는 그해에 무역자 들이 많은털이 꼭 필요하니 될수있는대로 많이 잡아오라고 한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읍니다.

그들이 하도 성화를대서 우리는 가을에 사슴을 잡아두지 않았고, 털을 백인한테 가지고 가면 식량과 바꿔먹을수 있기때문에 사슴고기는 별로 필요없을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다해 많은 여우를잡아 놓았었읍니다. 그러나 겨울이 중반으로접어들어 우리가 가죽을갖고 남쪽으로 내려갔을때 나무로만든 이글루는 문이열려 있는채로 서 있었고, 백인들은 수년동안 그속에서살았다는 냄새만 남겨놓고떠나간 뒤였읍니다. 오직 죽은것처럼 조용한 텅빈 캠프였지요. 상자들은 모두 비어있었고, 먹을것도, 실탄도 발견할수 없었으므로우리들은 겨울에먹을 고기를 장만할수가 없게 되었지요.

정말로 나는 더이상 생각하고싶지 않지만 그겨울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의 첫째 부인이었던에 피트나는 나의두 어린자식들과함께 그때 죽었지요. 굶주린것은 나뿐이 아니었고 우리들의 모든 캠프는 슬픔으로 가득찼고, 다섯사람중의 한사람 밖에는 봄까지 살지못했읍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툭투가 가르쳐 주었던 옛날의 생활로 돌아갈려고했지만 아무도 그 기술을 아는사람이 없었읍니다.

어떤사람들은 백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끈질기게 여우를 계속 잡고 있었지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죽어버렸읍니다. 사슴사냥으로 생활방법을 바꾸려고했던 극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살아있읍니다.

백인들이 떠나간후 다섯번째의 겨울이 지나자 다른사람이 그장소에 다시나타났읍니다. 우리들은 또 다시 사슴을 찾아헤메는것을 포기했는데 이번에는백인이 정말로 오래남아 있을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계속)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前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THAT'S A RIP OFF.

똑같은 물건인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값을 많이 치른 경우 우리는 「바가지 썼다」라고 한다。이것을 미국인들은 That's a rip off.라고 한다。

이 때의 rip은 조개다, 벗겨내다의 뜻인데 slang으로서 일상회화에 자주 쓰여진다。또한 got을 사용하여 I got ripped-off.라고 한다。

「얼마 주고 샀니?」How much did you pay for it? 「35불 줬어」I paid thirty-five dollars. 「너 바가지 썼다」You got ripped-off. 「똑같은 것을 나는 20불에 샀지」I paid twenty bucks for the same one.이때 buck이란 dollar의 속어이다。

A : How much did you pay for it?
B : I paid $120·00.
A : That's a rip off.
B : What makes you say so?
A : I paid $85·00 for the same thing.
B : I guess I really got ripped-off.
A : 그것 얼마 주고 샀니?
B : 120불 줬어。
A : 바가지 썼구나。
B : 왜 바가지 썼다는거야?
A : 똑같은 것을 나는 85불 줬거든。
B : 정말 내가 바가지 쓴 모양이구나。

※What makes you say so?직역하여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얘기하게 하느냐」는 결국 왜 그렇다는 건가의 뜻이다。

same thing : 같은것, same same 이라고 하지 말것。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총회소집공고

토론토대학 한인대학생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안 건 : 임원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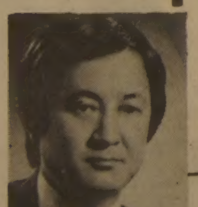
참가자격 : 토론토대학 ST. GEORGE 캠퍼스에 적을 둔 한인대학생

때 : 1981년 9월25일(금요일) 오후7시30분

곳 : ISC(33 St. George 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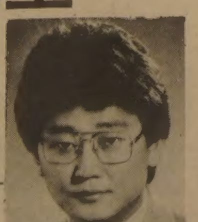
토론토대학
한인대학생회
선거관리 위원장

이대환 不動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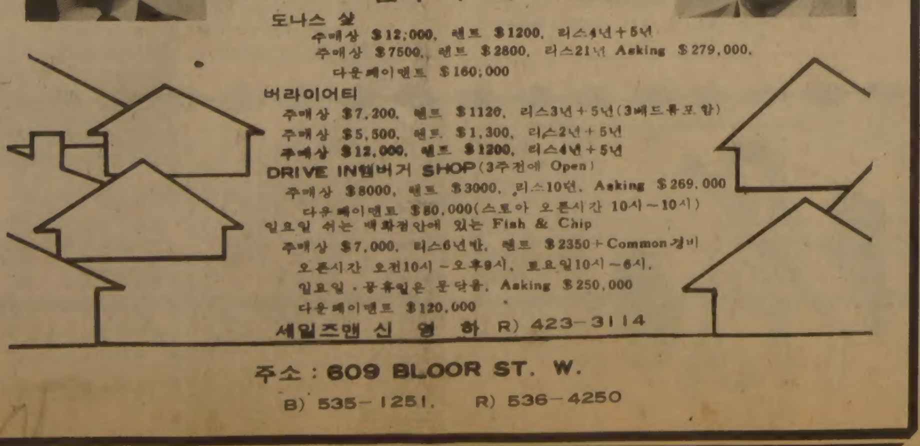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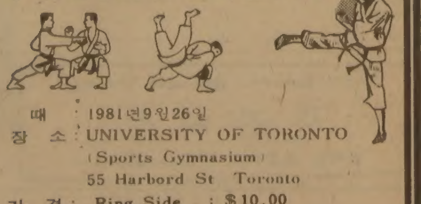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태권도 跆拳道

ONTARIO OPEN
TAE KWON-DO !
TOURNAMENT



때 : 1981년9월26일
장 소 : UNIVERSITY OF TORONTO (Sports Gymnasium) 55 Harbord St Toronto
가 격 : Ring Side : $10.00
Adult : $ 5.00
Children : $ 3.00
(Under12yes.)
시 간 : Eliminations 12 : 00 Noon
Finals : 7 : 00P. M.

PRESENTED BY
SON BROS.
TAE KWON-DO
CENTRE

(2190D BLOOR ST. W. TOR.)

☎ 763-1155-6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경험있는 가게헬퍼 구함:
월급 : $1140
☎ : 923-3574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MICHI(미찌) 일본식당
요리사 또는 부엌일 하실분 급구 합니다.
CALL : 매니저 · 924-7501
주소 : 459 CHURCH STREET

GAS ATTENDANT : ☎ : 782-6311

가게일 도우실 젊은 남자분 :
주6일 근무(월, 수, 목, 금, 토, 일)
Long Hours (AM9시30분~10 : 30PM)
주급 : 380달러(STARTING PAY)
☎ : 532-2961

스토아 파타임헬퍼구함(남자분)
스카보로지역
☎ : 267-0847

웨이트레스 구함 :
풀타임과 주말 파타임
☎ : 757-6334

쥬스바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5시 이후 연락바람
☎ : 438-0403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원

정원사 HELPER구함 : 연령제한 무
풀타임 또는 파타임
☎ : 653-8173 MR. 강

도나스 샾에서 일하실 풀타임
키친 헬퍼 구함(여자분에 한함).
☎ : 481-3677 미세스 박

경험있는 헬퍼구함 :
일요일만 근무
☎ : 690-4512 75 EASTDALE AVE.

매매및 양도

바쁜 프라자내 CONVENIENCE스토아 : 주매상 : $6300
보증, 리스 : 5년, 아스킹 : $59,000, 이상적인 패밀리 Operation
☎ : 766-9968 3437 st. Clair Av. E. 와 Birchmount
HELLENIC REALTY LTD. REALTOR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6107 YONGE ST.
☎ : 223-7278 JOHN.

좋은지역에 위치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사실 절호의 기회, 6년계약 싼 렌트, 아파트살림집 포함.
☎ : 654-4410, 635-8405 MR. 리타 리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스토아 급매 : 2층집 달린 가게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766-9491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 535-2804 미세스 김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매매
성업중인 그로서리 점포및 건물
위 치 : 6951 SHERBROOKE W. MONTREAL
주 매 상 : 7,000달러 이상
건물융게지 : 13⅓% (85년 7월까지)
전 화 : (B) 481-8131, (R) 481-3893

스토아급매 :
주매상 4000달러
☎ : 270-1371

아내의 장바구니 밑에 살짝 넣어놓는
주 간 여 성
행복한 결혼속의 작은 기쁨입니다

건물및 비지네스 매매 : 주매상 6500달러이상
스토아 매매 : 4200달러이상
☎ : 535-7200 MR. 김

DOWNTOWN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FAST FOOD STORE임
주6일 영업. 주매상 $2000 아스킹 $33000
☎ 536-0463

전화 후렌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COUNTRY STYLE 도나스샾 매매
이주관계로 급매코자함. A급, 프라자내
주매상 5천5백~6천,
꼭 사실분만 내방바람(오전7시~정오)
8141 Yonge St. THORNHILL

코너 스토아(우체국포함)매매 :
아스킹 15,000+스탁(영×써머 · 힐)
1272 YONGE ST. MR. INGHAM

성업중인 픽 · 업 세탁소 팝니다 :
2687 EGLINTON AVE. W. (KEELE근처)
☎ : 656-4727

구 혼

28세 이상 신원이 확실한 여성원함 관광방문녀도 무방함
MR. 강 일 영
1015 ROOSEVELT RD. #303 MISSI. ONT. L5G3Y7

집 · 방세 · 하숙

아파트 서브렛 : 렌트 $259
입주 10월1일 LAKESHORE와 MIMICO
☎ : 252-8823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 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 · 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꽃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용실 미세스 ·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 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인 벤 토 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6301 (R) 252-3063 MR. 오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약 건재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 · 히팅 · 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 · 이인식)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리 운 수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 · 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기 타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권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택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 · 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SOMÉ JEWELLERY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쏘메쎄라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모든 홍이 와서 生 <203>

趙善作 作
馬慶熙 畵

돌개바람불다 ④

『어떻게 된 거요?』
취중에도 유갈록은 어이가 없어 물었다. R양이 유갈록과 함께 마시고 있는 주위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눈치여서 그는 그녀를 빈 자리로 데리고 갔다. 마침내 R양은 울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꺼냈는데, 프로듀서 L씨에게 납치당했었다는 변명이었다. 납치당해 서해안의 어떤 별장에 연금되었다가 가까스로 나오는 길이라는 것이다. L씨라면 또 이름을 대면 누구라도 금방 알수 있는 굵은 안경테가 상징인 저명한 연출가였고 유갈록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유갈록은 믿기지 않아
『거짓말마. L씨는 그럴분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국제신사라고. 어디 예인이랍놓러갔다가 깜빡 잊어버리고서는…』
하며, 일소에 붙이려고했고, 그때 R양은 손에 쥐고있던 부러진 안경 다리 하나를 슬그머니 그에게 내놓았다.
『뭐야?』
『그분안경 다리예요』
『이걸 왜 나한테 주지? 어디서 났는데?』
『방을 나오면서 주워가지고 왔어요. 갈록님이 믿지 않으시려고 하면 보여드릴려구. 갈록님이 그분한테 돌려드리면 더욱좋구요』
유갈록도 이제는 믿지않을수가없어 자초지종을물었다. 그러나 R양은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의 몸을보여주었다.
우선 원피스의 맨위 단추 한 개를 풀고가슴을 보여주었는데, 가슴의 융기를 가리는여성용품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은 매우 거북해하면서, 여기까지 확인시켜주어야 하나 망설이더니 원피스 자락을 히프쪽으로 재빨리 걷어올려 보였다가 내렸다.
유갈록은 그녀가 무슨짓을 하려는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R양이 팬티까지입고 있지 않음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유갈록은 비로소 R양이 L씨의 마수(魔手)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왔나 짐작할것 같았다. 그것은 도마뱀이 보다 큰 짐승에게 붙잡힌 꼬리를 끊고 도망치듯이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것에 해당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R양은 맨몸에 원피스만걸친 그대로 유갈록을 찾기 위해 이 술집 저 술집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헤맨 것이다. 유갈록의 말끝에 권여사가 『속치마만 입고 뛰었구먼』하고 말해서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졌다.
그러나 웃음의 뒤끝은 그렇게 산뜻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도 유갈록은 L씨의부러진 안경다리를 가지고있는데, L씨를 만나면 『안경다리 돌려드릴까요?』하고 농담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L씨는 『자네 가져. 바꿔끼만한걸 난 그냥 거기다 놓고왔단말야』하고 천연덕스럽게 받아넘긴다는 것이다.
하나의 가십을 끝내자 유갈록은 또다른 가십을 끄집어냈다. 이번에는 서아산에서 로케이션을 할때 이야기였다. 미남배우 Q와 신인여배우 U의 정사(情事) 신이었는데, 카메라는 폭포 뒤에서 폭포를따라 판 다운하다가 숲사이로 두남녀의 나체의 사랑을 멀리 내려다보도록 콘티뉴티가 짜여진 커트를 찍었다. 몇번의 리허설끝에 촬영은 무사히 마쳤다. 그런데 스태프들이 폭포뒤에서 내려와보니 신인여배우 U가 울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하고 있었다.
유갈록은 미남 배우 Q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힐난을 섞어 물었다. Q는 조금 얼굴이 빨개지며 그러나 떳떳스럽게
『감시 한 사람 때려 놓지 않은 갈록님이 잘못이지. 우리들이야 뭐 잘못이 있읍니까?』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도 의아해 하며 유갈록이
『우리들이라니? 그런데 U가 왜 저래? 가서 사과해 인마』
하고 채근했더니 Q는
『사과는 하겠어요. 하지만 개가 협조하지 않고도 일이 됩니까. 밴디즈는 제가 제손으로 떼었다구요. 당한 것은 오히려 접니다』
하고 항의하더라는 것이다.
나는 훨씬 뒤에 알았지만 밴디즈란 배우들이 나체가되었을때 몸을 최소한으로 가리는 헝겊조각을 뜻하는 것이었다. 두번째 가십에 대해서도 권여사는
『이거 어디 유갈록 믿고 우리 나미 배우시키겠나. 다음 역에서 우리 내리자』
하고 농담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중앙 AUTO-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The Korea Times Toronto

週刊한국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1981년9월21일(월)　　Monday, September 21, 1981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뉴스·안테나

◇9월에 들어서면서 매기가 7~8월에 비해 2배이상 급증하고 수요패턴도 16인치쪽으로 기울어 품귀현상까지 낳고있다.

컬러TV 購買熱급상승

經濟

금년내 百20萬臺 팔릴듯

국내가전메이커들은 올들어 8개월동안 86만8천대(稅後1천5백억원규모)의 컬러TV를 시판했으며 비성수기인 지난7~8월의 판매격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판매실적이 1백20만대이상의 호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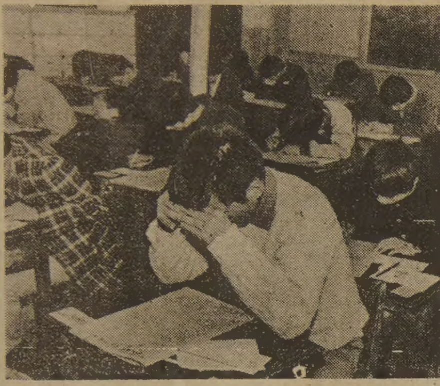
가전업계에 따르면 상반기까지의 컬러TV판매실적이 73만대로 月12만대이상의 활기를 보이다가 7월에는 7만8천대, 8월 6만대로 종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9월에 들어서면서 매기가 전월에 비해 2배이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까지는 최소한 40만대가 더 나가 올해의 총판매실적은 1백20만대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

8월말까지의 社別판매실적을 보면 金星 34만대, 三星電子 30만4천대, 大韓電線 18만2천대, 亞南電氣 4만2천대.

8월말까지만해도 14인치및 20인치에 집중되던 컬러TV수요패턴이 이달들어 16인치쪽으로 크게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문에 16인치컬러TV를 시판중인 金星과 亞南에서는 공급물량부족상태에 있어 생산확대를 서두르고 있고 三星과 大韓도 이달중에 16인치를 시판할 계획으로 있다.

가전메이커들은 16인치에 대한 선호도가 이처럼 확대돼나가면 16인치수요가 연말쯤에는 전체판매량의 30~40%까지 증가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컬러TV모델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大학교의 입시요강도 확정발표됐다. 모집단위를 소계열, 또는 학과별로 전환하고 내신성적을 32%까지 반영키로 했다.

小系列·學科別모집키로

教育

서울大 新入生모집 요강

서울大는 지금까지 모집단위를 계열별에서 소계열또는 학과별로 전환하고 내신성적을 30·2%에서 32%까지 반영하는 내용의 82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을 확정·발표했다.

이 요강에 따르면 인문대학은 지난해까지의 하나의 계열에서 어문학계열의 인문1계열과 사학계열의 인문2계열, 철학계열의 인문3계열로, 사회대는 정치·외교학과의 사회1계열, 경제·무역학과의 사회2계열, 사회·인류·신문학과의 사회3계열과 심리·지리·사회복지학과등 3개학과별로 모집한다.

자연대학은 9개학과를 4개계열로, 화학과·의예과·치의예과는 과별로 모집한다.

사범대학은 3개 계열과 체육교육과·국민윤리교육과등으로 모집하며 가정대학도 과별로 모집한다.

농대는 10개학과를 농학계열로 묶었으며 잠사학과·농가정학과·농업교육과·농경제학과등은 과별로 모집토록 했다.

이밖에 경영대·법대·약대등과 의대간호학과·미대·음대·수의대등은 종전대로 계열또는 과별로 모집한다.

서울대는 복수지망허용을 제2지망까지 하되 인문사회계열내에서, 이공계열은 이공계열만 복수지망을 허용하며 예능계는 복수지망을 종전과 같이 불허키로 했다.

내신성적 반영비율은 일반계열을 지원할 경우 5백점만점에 1백60점(32%)을, 학력고사와 지방계열이 갈을 경우엔 자신이 받은 점수에 30점을 가산, 반영비율이 30·2%가 되도록 했다.

◇한국최초 世界유도 챔피언 탄생의 순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서 우승한 한국의 朴鍾學(中)이 시상대에서 포즈를 취하고있다.

한국유도史上 첫金메달

스포츠

朴鍾學, 세계柔道大會서

한국의 朴鍾學선수(24·수경사)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유도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朴鍾學은 지난 5일밤 이곳 유러홀에서 속행된 제12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3일째 라이트급(65~71kg) 결승전에서 올해 세계군인대회 챔피언인 프랑스의 세르지·다오(21)에 위누르기로 이겨 감격적인 첫 금메달을 따냈다.

朴은 1회전서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첸딩·담던(몽고)을 엎어치기 한판으로 제압하고 2회전서 이탈리아의 니콜라·메토를 안뒤축걸기로 효과승, 그는 이어 日本의 세계챔피언 가쓰기·기요또를 물리치고 3회전에 오른 헝가리의 산도르·나기솔리모시도 제압했다.

朴鍾學은 세계도전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처음부터 지목되었었다. 지난번 자카르타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결승에서 日本선수에 다 이겼다가 심판의 경고를 받아 억울하게 반칙패했었는데 이번대회에 떠나기전 그는 『그녀석에 진 분을 풀고야말겠다』고 다짐했었다.

지난해 세계군인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바있는 朴鍾學은 침착하고도 대담성이 있는 공격형 선수.

淸州商으로 3년전 유도대학에 진학, 수도경비사에 소속되어 첫 금메달을 획득한 그는 위 체급서도 기대되는 유망주.

뉴스·안테나

◇수해를 이기려는 의지가 전국으로 펴져가고 있다. 내무부도 수해농가에 대해서 농지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農地稅등 5년간 免除

國內

水害농가 支援策 시달

내무부는 태풍 애그니스로인해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된 농가에 대해 농지세및 재산세전액을 최고 5년까지 면제해주고 70%이상의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농지세전액을 면제해주는것 등을 내용으로한 태풍피해복구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수해가 없거나 경미한 시·도는 수해가 심한 지역에 지원단을 보내 특별지원활동을 벌일것과 재해지역공무원의 비상근무는 물론, 민방위대를 계속 총동원, 복구작업을 펴도록했다.

내무부는 이번 수해로인해 가옥및 선박이 절반이상 파괴됐을 경우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50%이하가 파괴됐을 경우에도 재산세일부를 감면토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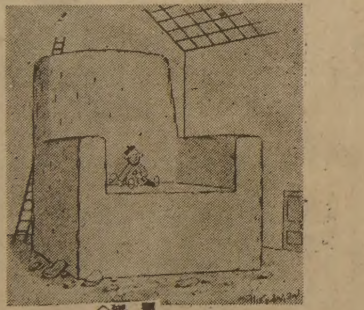
이번 수해로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세·농지세·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재해민의 재산세·사업소득세·취득세등도 6개월정도 징수유예토록 했다.

내무부는 수해복구물자를 수송하는 차량과 복구작업에 종사하는 인원및 복구작업중장비의 야간통금시간내 통행을 허용토록했으며 수해복구 및 구호를 위해 이미 정해진 예산을 최대한 전용하고 가용 재원및 예비비도 총동원, 투입토록 조치했다.

또 수해로인한 부상자는 전원 시·도립병원과 보건소에서 무료진료토록하는한편 수해가 극심한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도 면제해주도록 했다.

해외 걸작 만화

◇화가와 모델



◇無題

◇누가 보잖아요?

해외 걸작 만화

현대한국작가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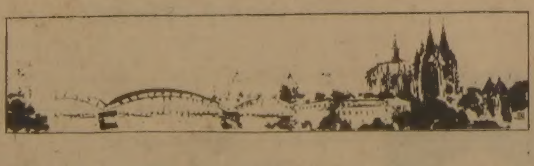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이 양 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선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 종 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 용 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권 승 면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전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살핌전



한 풍 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1회 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 연 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 영 삼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장　소: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특설화랑)
시　간: 10월8일(목) 9일(금):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2시~ 〃
〃 12일(월) 13일(화): 〃 6시~ 〃

주최: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
후원: 서울대학교 동창회, YMCA, 한국일보,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Y멘즈클럽(알파, 베타)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偉大한 참으로 偉大한 로마 <下>

世界野性紀行 ㊱

宋肅瑛 記

로마의 역사는 자그마치 2천5백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는 우리나라의 中江鎭에 해당하는 북위 41도 54에 있지만 기후는 지중해성이므로 서울보다 연평균기온이 5도나 높다. 겨울에 비가 내리며 모든 식물은 온난 다습한 겨울에 자란다. 그러니까 거의 겨울이 없는 사계(四季)절이 계속되는 기후로 좋은 도시이다.

로마의 역사는 역사책에서 너무 자세히 배웠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필자가 본 로마와 男子‧女子등 로마의 풍습‧건축‧미술‧조각등 명소들의 이야기만 하기로 하자.

이탈리아 男子들의 이야기는 전번에도 많이 했지만 로마남자의 기질은 레오나르도비행장에서부터 화끈하게 겪었다.

필자를 YWCA호텔로 안내해준 운전기사는 30代의 뚱뚱한 미남이었는데 이름을 안토니오라고 소개하며 내일은 비번이니까 로마안내를 하겠노라고 했다.

「아침 몇시에 모시러 올까요?」

그는 영어도 잘했고 스페니시도 잘한다고 뽐냈다.

「몇시에 올까요? 자가용을 갖고 오겠읍니다. 내일은 마침 데이트 약속이 없거든요.」

「나는 한국말로 가이드하는 사람을 구해 놨읍니다.」

내가 안토니오의 택시를 탄 것은 공항에서 부터이고 그는 한국 대사관에 있는 동안 나를 기다려주는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친절에 학질을 뗐지만 그는 기어코 이튿날 아침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YWCA호텔은 낡고 음산하고 기숙사모양 종을 쳐서 아침식사를 알리는 전근대적인 여인숙이었지만 남자 손님은 면회실 이외엔 못 들어오는 엄격한 곳이었다.

안토니오는 내가 베니스에서 돌아온 날도 전화를 걸어왔는데 친절한 사람인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판단이 안갔다. 미스터 정은 안토니오 이야기를 듣더니 로마남자를 조심하라고 주의 까지 준다.

「지분거리는 남자는 반드시 그 지분거리는데 이유가 있읍니다.」

미스터 정과 로마교외의 묘적들을 감상하고 돌아오면 나를 저녁에도 안토니오는 자가용을 갖고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슴에는 붉은 장미까지 한송이 꽂고 있었다.

가이드가 없는 외국여자들은 정말 이탈리아 남자의 이 끈덕진 정력앞에 항복하지 않을수없을 것 같다.

비비엔‧리가 주연한 「로마의 愁人」이란 영화가 생각났다.

젊은 이탈리아 남자를 사랑한 영국여자의 불행한 종말을 그린 영화가 바로 그 영화의 내용이다. 또 한가지 특기할것은 한국에서는 개봉할 수없는 조자의성영화를 로마 개봉관에서 보았는데 4부작 「데카메론야화」가 한신도 커트 안한채 계봉하고 있는데 4個月間 롱런하고 있다고 들었다.

◇판테옹 神殿。

르네상스時代의 藝術品…保存잘돼 놀라고

한마디로 너무 우습고 풍자적인 영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가 나왔다.

이탈리아여자들은 스물다섯살만 넘으면 대개 뚱뚱한데 키도 그리 크지않고 머리도 대개는 흑발이다.

뒤에서 이탈리아남녀를 따라가면 여기가 서울인가 착각할 정도로 단구의 흑발들이다.

미남 미녀는 20대 고개를 넘는 전후의 나이이고 그 이후는 남자나 여자나 단구에 살이 쪄서 별로 미끈하지않다.

다만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옛 거리와 옛 건물 안과 밖에 서있는 수없이 많은 반나의 대리석상들이다.

대리석상들의 대부분은 너무도 완벽한 8등신으로 예를들면 세계최고의 미남 아폴로상이라든가 힘으로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아틀라스상 같은것은 여성들의 탐미안을 만족시켜 주고도 남는 완성미를 갖추고 있다.

미켈란젤로 박물관에서 나는 각국의 많은 화가와 조각가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데생하느라고 많은 날을 이곳에 出勤한다고 했다. 일생동안 독신으로 지내면서 오직 조각과 미술에 전념했던 그는 세계 예술인의 동경의 대상인데

「특별히 그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서왔다는 조각가에게 묻지 않을수 없었다.

「르네상스시대의 최고 최대의 걸작을 남긴 그의 예술은 모든 미술‧조각가들이 흉내낼수없는 천재성과 그작품량에 있읍니다.」

1475년에 나서 1564년 89세로 죽을 때까지 그는 건축가‧조각가‧화가로 그가 추구한것은 조화가 아니고 인간의 「힘」그 자체였다. 그의 그림은 해부학적 정확에 기초를 둔 강력한 육체표현이고 회화에 있어서도 율동적인 선이 「힘」을 뿜어내고 있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미켈란젤로의 大作들은 피렌체의 다비드像과 로마市정청의 대회의실 벽화, 水中접전도, 거대한 조각 「모세」상, 「다비드」상, 「노예상」과 시스티나 예배당의 天障畵, 줄리아노‧메‧메디치의 묘조각, 특히 주목할것은 시스티나 예배당의 대제단화 「최후의 심판」인데 그 그림은 세계 많은 「최후의 만찬」그림 中에도 최고걸작에 속한다.

말년인 72세때부터는 성 베드로성당의 건축장관으로 있으면서 근 70여년을 미술‧조각‧건축에 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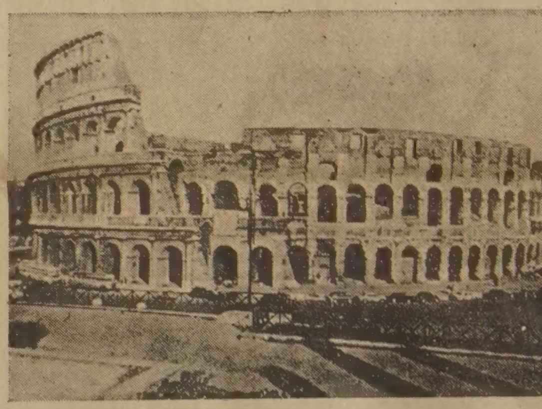
역대 임금도 그의 작업시간에는 기침 한번 못하고 구경만 하고 돌아 갈 정도로 자기 예술에 투철하게 생명을 부어 바친 예술가로서 이탈리아가 세계에 자랑하는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의 위대한 세개의 별로 꼽힌다.

미켈란젤로 박물관은 규모가 작고 그의 大作 스케치와 미완성 스케치등이 500년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디에선가 그 위대한 예술가가 살아서 걸어나올것 같은 위압감을 준다.

또 로마 관광에서 빠뜨릴 수없는 곳은 이탈리아 박물관인데 특히 로마 제국시대 이집트 정벌 때 가져온 이집트관은 그 스케일이 세계적이었다. 남의 文化예술품을 이 정도로 약탈해 온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잘 간수해온 이탈리아란 나라는 그 조상들이 대단했듯이 역시 대단한 후손들을 가졌음엔 틀림없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성급한 성미때문에 어딜 가나 大폭력조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정부가 마피아와 같은 폭력조직에 짐을 먹고 있고 현직 수상, 장관들이 납치되는 세계적 大事件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미국내에 있는 이탈리아의 폭력조직도 무섭지만 역시 본고장인 이탈리아 하고도 로마에서는 서슬이 퍼런 피비린내를 풍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필자가 로마에 있을 때도 대낮에 경찰관이 큰길에서 사살되는 현장을 목격했다. 어느 레스토랑 창으로 폭력조직이 무섭다는 것을 외신으로만 읽었던 필자는 마피아의 모국 이탈리아에 와서 더욱 더 그 잔인무도, 무모함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로마의 競技場 바깥모습。

이탈리아 박물관의 스케일은 가히 파리의 루브르와 맞먹는데 세계 각국의 조각 걸작품은 오히려 이탈리아박물관이 앞선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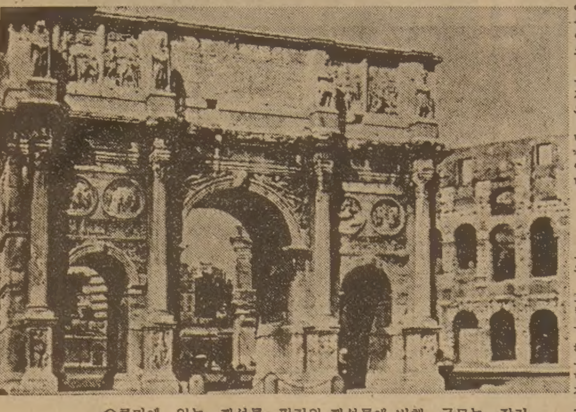
대리석의 나라 이탈리아, 그곳 이탈리아중의 에센스인구로마의 모든 옛건물은 거의가 대리석인데 평범한 귀족의 집도 조각의 화려한 문양으로 건축되어있어 한집 한집이 모두 역사적 건축미를 지니고 있다.

예술인의 살롱 그레코에서 언덕쪽으로 조금 가면 뒤세가 묵던 집의 창이 보이는데 황갈색의 초라한 집에 뒤세의 추억을 담고 있다.

1주일에 한번 일요일에만 서는 히피市場에도 가 보았는데 그 히피시장에는 이 세상의 온갖 없는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남은 것과 새것의 구별없이 모두 있고 티베르강변에 서는 이 히피시장은 물건값이 싸서 새 구두인 구두에서, 머리핀, 담배통까지 정말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정나게 싸다. 필자도 로마의 기념품을 여기에서 샀는데 여행때마다 늘어나는 기념품을 담을 큰 백을 여기에서 단돈 1천원 주고 샀다. 로마는 글로 쓰는것 보다 보는 것이 진짜다. 사진에 있는 많은 고적들은 아무리 칭찬을 하고 「R」를 한대도 보는것만 못하다. 정말 로마를 못보고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不幸한 사람일것 같다.

◇로마에는 수많은 噴泉이있다。제마다 각각 아름다운 분수를 뿜어올리는 분수대 주변은 온통 아름다운 조각상이 둘러처져 있다。



◇로마에 있는 개선문。파리의 개선문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벽에 붙어있는 조각은 일품이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 連載漫畵

"당신 부엌문에 용수철달린 제동기를 달아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발판사다리와 나사드라이버 그리고 렌치가 있어야겠어"

"자, 여기있어요" "우선 조임나사를 풀라구 그리고 나선 오른쪽 볼트를 딱딱해질때까지 조여"

"으음… 이렇게하면 제대로 된것같은데"

"고마와요, 여보" "천만에"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 連載漫畵

"이게 무슨수프요?"

"모르겠는데요, 손님생각엔 그게 무슨수프 같읍니까?"

"모르겠는데요"

"주방장 역시 아리송해 합니다"

내고장뉴스

草川~三生里 도로

충북 陰城邑草川里와 三生里를 잇는 12㎞간의 도로가 지난13일 준공, 개통돼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버스노선이 신설됐다.

이 도로는 郡지원비 4천2백여만원과 주민부담 5백만원을 들여 착공 3년만에 완공한 것이다. 【陰城】

忠武公동상 除幕式

충북 報恩郡 水汗국민학교 동창회(회장李然翼‧56) 회원 2백여명은 모교 가을운동회 날인 13일 학교교정에 세운 세종대왕, 충무공 李舜臣장군 동상제막식을 가졌다. 이동상들은 동창회 성금으로 건립된것이다.

또 이학교의 在京동문회에서도 10여종의 農악기를 모교에 보내왔다. 【報恩】

秋夕맞아 이웃溫情

충남牙山郡新昌面五木里金炳大씨(31‧新昌향우회장)는 추석날인12일영세민들에게전해달라고라면10상자를金鎬乾면장에게 기탁했다. 【溫陽】

영세농가에쌀‧연탄

경기도華城郡台安面安龍2里 경수섬유 정덕종사장은 같은 마을 金正順여인(70)등 15세대 영세농가에 쌀2가마와 연탄 2백장을 사주었다. 【水原】

「농촌의 작업」大賞

15일 열린 한국사진작가협회 裡里지부주최 裡里시민의 날기념 제1회 전국사진작품공모전에서 黃의호씨(34‧南原)가 출품한 「농촌의작업」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裡里】

벼適期수확을 지시

전남도는 16일 조생종벼를 중심으로 벼베기작업을 실시하면서 지대별‧품종별 수확적기를 판단, 작업계획을 세운다음 새마을공동작업으로 적기에 수확하라고 각시군에 지시했다. 【光州】

光州등 豚肉價인상

전남도는 16일 육류 연동가격제에 따라 돼지고기값을 7‧5% 인상조정, 이날부터 시행키로했다.

道는 돼지 생체가격이 오름에 따라 육류연동 가격제를 적용해 6백g당 光州‧木浦‧麗水등지는 2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군지역은 1천9백50원에서 2천1백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光州】

朴鎭洪 목칠공예전

朴鎭洪목칠공예전이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光州南道예술회관에서 열린다. 【光州】

本報배달소년에 膳物 廉경기知事

廉普鉉경기도 知事는 지난11일 한국일보 水原지사, 安城, 龍仁, 驪州, 仁川, 烏山지국등 1백50여 배달소년 사원들에게 추석선물로 양말과 운동화 1켤레씩을 보내왔다.

또 加平군수金漢壽씨와 충북鎭川군수 羅基正씨, 松炭市정화협의회장 鄭泰鉉씨, 충남溫陽경찰서 道高지서 윤준기경사는 각기 관내 한국일보지국을 찾아 양말‧운동화‧학용품등을 배달소년들에게 추석선물로 전달하고 격려했다. 【水原‧鎭川‧松炭‧道高】

도서관열람료 인상

부산도서관을 비롯한 부산시내 5개시립도서관의 열람료가 오는 17일부터 50원에서 1백원으로 인상된다. 【釜山】

양식기 가을대방출

(CONTEMPORARY FALL SALE)

지난번에 오셨다가 물건이 매진되어 그냥 가신분 봄 가격과 같은 값으로 다시 모시겠읍니다.

- 선정된 고급 15개 품목 반액으로 팝니다.
- 기타 모든 Noritake China Set정가의 25% ~35% 감한가격으로 팔겠읍니다.
- 새로 일본에서 직수입한 대형접시와 만두, 비빔밥, 냉면등으로 쓰시기 좋은 그릇과 찐그릇 정가의 약 ¼가격(75% OFF)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방매 하겠읍니다.

특 가 기 간 : 9월21일부터 물건이 떨어질때까지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 sheppard의 sheppard center내)

전 화 번 호 : 221-5990 MRS. 고

AMIK CRAFT SHOP

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교민 유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늘한 바람이 옷깃에 스며들어 바뀌어 가는 계절을 실감케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바뀌는 계절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이민의 삶이 그저 막연히 저편으로 밀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때인지도 모르겠읍니다.

이즈음 우리 양로원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는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양로원 건립에 첫삽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져, 여기에 작은 모임을 마련했읍니다.

이번 자선 전시회는 국내 유수의 중진화가 여러분들이 우리 건립위의 적극호응하여 그분들의 정열과 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이국의 바쁜 생활 뒷그늘에 가리워 자칫하면 소외되기 쉬운 외로운 노인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으로, 노후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주며, 따뜻이 감싸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되어집니다.

교민 여러분의 정성어린 참여는 삭막한 이민의 삶에 뜻깊은 사랑과 희망으로 이어지리라 굳게 믿읍니다.

끝으로 이번 자선 전시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여러분 그리고 후원단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 소 :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북질화랑)
시 간 : 10월8일(목) 9일(금) :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 2시~ 〃
〃 12일(월) 13일(화) : 〃 6시~ 〃

양로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일동

바다는 人類의 마지막 寶庫

◇地球의 마지막 寶庫인 바다에 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각국에선 海洋開發을 위해 바다속을 뒤지기에 혈안이 되고있다。

끊임없는 硏究로 海底神秘에 挑戰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바다에 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海底의 神秘를 파헤치는 스킨스쿠버만도 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세계는 海洋開發을 위해 바다속을 열심히 뒤지고 있다。인류의 생존과 자원 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이다。지상의 자원중 그 일부는 이미 한계에 달해있고 자원의 원천이요 보고인 해양은 무궁 무진한 모든 자원을 갖추고 인류의 개발과 활용을 기다리고있다。

해양에대한 연구는 기원전 4세기경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이 해파리에관한 연구를 기술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지중해연안의 동물상을 조사하여 1백80여종을 분류하기까지했다。

그후 15세기 콜롬부스, 16세기 마젤란, 18세기 제임즈·쿡, 19세기 찰즈·다윈과 톰슨경, 20세기 원자력잠수함 노틸러스호의 북극점 수중횡단, 재크·피케트와 도널드·월시의 심해잠수정 트리에스트호의 세계 제일깊은 필리핀동부의 1만1천m의 챌린저해저 탐험등이 이루어지는동안 해양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병행되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국가이면서도 해양개발에 눈을 뜨지못하고있다가 최근에 들어 정부당국은 해양개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아틀란티스 王國

약 1만년 전에 실존했다고 전해오는 아틀란티스 왕국을 찾기 위한 해양탐험가나 고고학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이 기술한 바에 의하면 아틀란티스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의 강(바다)오서누스 가운데 위치했고 주민들은 사원과 궁전을 짓고 항구와 배를 건설했으며 운하를 파고 다리를 놓았고 매우 발달된 농업기술과 상업이 번창했었던 찬란한 문화를 가진 왕국이었다。기원전 9천6백여년 경에는 거의 모든 지중해 국가들을 정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아틀란티스 왕국이 대지진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바다밑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쉽게 풀수없는 사건들이 수없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다。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시와 푸에르토리코의 산환, 그리고 버뮤다섬을 연결하는 이 삼각형의 해역은 초자연적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마의 삼각지대로 불려오고 있다。

1918년 3월 승무원 3백 9명을 태운 2만톤급의 미해군수송선 사이클로프스호의 실종사건은 지금까지도 그 의혹이 풀리지 않고있다。당시 이 배는 가장 큰 선박의 하나로 카리브해의 바르바도항을 떠난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인데 실종당시 기상상태도 좋았고 적의 잠수함도 없었으므로 더욱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1976년 10월 파나마의 광석운반선 실비어·오사호(1만5천톤)도 이 버뮤다 해역에서 영문모르게 실종되었다。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1945년 12월5일에 일어난 항공기실종사건이다。

79년창립된 水中探險隊…海洋연구 힘기울여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 공군기지를 이륙한 5대의 폭격기편대가 한꺼번에 아무 흔적도 없이 버뮤다해역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5일간에 걸친 공중및 해상 수색에서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수가 없었고 수색에 참가한 비행기 한대도 감쪽같이 없어져버린것이다。

그런 이유에서만 바다를 찾는것이 아니다。바다속에는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가 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온갖 멋을 뽐내는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다。

더 큰 이유는 육지에서 얻을수있는 모든 자원이 바다속에 무진장 있기 때문이다。

水中裝備개발로 레저 스포츠도 脚光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식량자원등이 점차 한계성을 드러내고있는 현싯점에서 바다는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해줄수있는 인류의 마지막 보고인 것이다。

해양에 대한 연구와 탐험은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피티아스가 처음으로 위도를 측정했고 밀물과 썰물현상이 달의 인력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지중해연안의 바다동물을 조사하였다。본격적인 해양탐험은 15세기말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콜롬부스가 美대륙을 발견한것이 대표적인 예이고 스페인의 마젤란이 16세기초 3년간에 걸쳐 배를 타고 세계일주를 하는데 성공하여 세계지도의 윤곽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후 18세기 영국의 항해가 제임즈·쿡에 이어 1831년 찰즈·다윈은 1836년까지 5년에걸쳐 해양조사를 실시하여 생명의 기원및 진화론이 이 탐험에서 정립되었다。1872년부터 1876년까지 영국의 톰슨경이 이끄는 챌린저호에의해 과학적인 해양조사가 이루어졌다。

챌린저호는 약 7만마일을 항해하며 해양·물리·화학·생물및 지질에관한 자료를 수집했고 채집한 생물의 종류만도 4천4백종이 넘었다。

이를 기점으로 메테올(1925~1927)、아틀란티스(1931)、갈라티아(1950~1952)탐험등 바다밑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최초의 북극해저탐험은 미국해군의 앤더슨함장이 특별히 건조된 원자력잠수함 노틸러스호로 1958년 8월 북극점의 얼음및 바다속을 통과하는데 성공하였다。현대의 고도화된 과학문명은 인간을 바다속 제일깊은 1만1백m까지 안내하게 되었다。深海의 높은 수압에 견딜수있게 특별 고안된 트리에스트호는 세계에서 가장깊은 필리핀동쪽의 챌린저해저를 4시간38분동안 탐험에 성공하게 되었다。

1943년 6월 프랑스의 해양학자 재크·이브·쿠스토씨는 에어탱크에 레귤레이터를달아 잠수에 성공, 물속에서 호흡가능의 신기원을 개척했다。이후 AQUA·LUNG이 개발되어 현대식장비로 발전되어 해양탐험가들은 수중 40여m까지 자유롭게 유영하며 탐험과 조사연구활동을 하게되었다。또한 인간의 생활공간으로의 활동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수중도시, 인공섬, 수중주택등이 연구되고있으며 미국과 프랑스학자들에의해 수심2백m의 켈리포니아바다밑에서 8명의 잠수부들이 약60일간 생활하는데 성공하였고 대서양의 버진 아일랜드연안에서는 해저의 집에서 약6개월간에 걸친 장기적응실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같이 해양연구의 결과로 발달된 수중장비들은 대량생산공급으로 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게되어 미국에는 6백만명, 일본에는 1백만명의 스포츠다이버들이 바다속의 신비와 매력에 이끌리어 더욱 더 깊은곳을 향해 도전하고있다。

우리나라에도 60년대말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5천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여성들도 2백여명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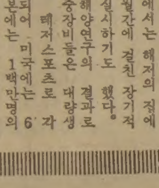
한국수중탐험대 李秀光대장(公認會計士)은 순수 아마추어정신으로「사람답게 크게 되자」라는 家訓아래 79년 8월26일 창립, 해양학자·교수·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등 20명의 이사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탐험대는 학술적·과학적 해양자료수집에 힘을 기울이며 동해안 경북 구룡포에 전용훈련장을 마련, 한국해양학교를 설치, 학생들에게 바다에 관한 관심을 계우쳐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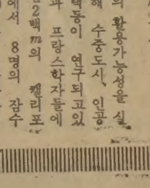
<[illegible]기자>

歷史로 본 이 週의 人物들

□루스벨트 뉴딜정책 공표
□高相敦 에베레스트 정복
□마젤란 최초 世界일주



◇루스벨트



◇高相敦

마젤란 아메리카 新대륙과 지구둥근 사실 최초로 발견

▲마젤란, 최초의 세계일주 항해차 出航(1319·9·20)

포르투갈 북동부 트라주즈몽테市의 하급 귀족 출신으로 서북항로에 의해 몰루카諸島에 도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로부터 원조를 받아 선박 5척과 선원 27명으로 산루카르港을 출범, 라·플라타江에 달했다。마젤란해협을 발견한후 다시 북서로 향하여 태평양을 횡단, 필리핀群島에 이르렀다。

1921·3·16 마크탄섬에서 토민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나머지 선원들은 가노의 지휘하에 잔존의 2척, 트리니다드호및 빅토리아호로 몰루카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으나 트리니다드호는 난파하고 빅토리아호만이 18인의 승선원과 함께 최초의 세계 일주항해를 끝내고 산루카르항에 귀항했다。

이것으로 地球가 球體인것과, 아메리카 대륙은 아시아와는 별개의 신대륙인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루즈벨트 공황 대책 내건 선거전서 압승 대통령 당선돼

▲루스벨트 대통령, 뉴딜정책 공표(1937·9·17)

1929년 10월24일 뉴욕의 주식거래시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그후 경기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여 이른바 대공황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때 공화당 정부는 농산물 出荷法, 부흥 금융공사, 후버 모라토리엄등의 조치를 취해 보았지만 공황을 막을수 없었다。

특히 1933년 봄엔 전국적 금융공황이, 뒤이어 경제의 모든 기능이 정지할 상태에 빠졌다。이와같은 경제정세하의 1932년 대통령 선거전은 공황대책을 중심과제로 삼게 되었다。

공화당 후보인 후버는 공황의 원인을 제1차 세계대전과 그후의 세계정세에서 찾았고 민주당의 루스벨트는 공황의 원인을 미국경제의 결함 속에서 발견, 그 대책으로 과감한 뉴딜을 행해야 한것이라고 선언했다。선거결과 압도적 승리로 루스벨트가 당선, 一群의 뉴딜러즈라고 불리던 고문단을 모아놓고 많은 뉴딜입법을 제정했다。

우선 경제회복을 위해 건전한 은행의 재개를 도모했고, 전국 산업부흥법을 정해 산업계의 파당경쟁을 배제하고 업계의 안정과 부흥을 도모했다。

주요농산물의 생산을 제한,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러한 일련의 경기회복정책이나 구제사업은 종래의 자유기업 체제를 대폭 수정한 사회개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高相敦 77년 한국인으론 처음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

▲한국동반대 高相敦씨, 에베레스트 정복(1977·9·15)

77년9월15일 12시50분(한국시간 하오 4시30분)—。이 시간은 세계 산악사에 영원히 남을 기록이다。

1962년 慶熙大 산악부 히말라야 원정대의 다울라기리峰 정찰 試登에서 시작해서 15년의 끈질긴 말라야 도전의 집념이 끝내 한국인으로 하여금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서게 했다。

그 영예로운 한국인은 77 한국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高相敦。함께 갔던 세르파 펨바·노르부와 高대원은 만년설의 정상에 태극기를 꽂고 1시간 동안이나 감격으로 몸을 떨었다。이 성공으로 1953년 영국의 에드먼드·힐러리경의 첫등정이래 8번째 나라가 됐다。

그러나 산에서 살고 산에서 죽겠다던 山사나이 高相敦은 끝내 산에서 지고 말았다。

79 한국 메킨리 원정대에 참가했다。

北美 최고봉인 메킨리峰을 정복한 한국동반대는 79년6월19일 웨스턴 팀의 루트를 따라 하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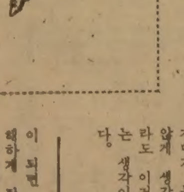
해발 6천m지점 경사 65도의 가파른 빙벽에서 高相敦대장과 李宣敎 대원은 실족, 숨지고 朴勳奎대원은 중상을 입었다。

夫婦 아베크 칼럼

今週의 主題

아침신문

金良源씨 · 趙東春씨



현관 문틈으로 신문이 던져지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뜬다。

아내도 역시 그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나는 신문을 가지고 방에 들어와 아내와 반을 나누어 본다。

아내가 관심이 있는것은 가정란이고 내가 필요한것은 정치면과 사회면이기때문에 서로 불평없이 나누어 보는것이다。

오늘은 무슨 좋은 얘기가 없나 훑어 보다가 밝고 좋은 기사가 있으면 나 자신이 크게 성취한 기분으로 으쓱한 기분이 되지만 어둡고 답답한 기사가 머리글자로 나올 때는 안본것을 본것처럼 씁쓸한 기분이 된다。

왜 요즘은 그렇게 별난 사고들이 들끓는지 모르겠다。

돈때문에 가까운 혈육을 죽이는 피냄새가 물씬 하는 소름끼치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등록금을 빚내어 가져가는것을 소매치기 당한 답답한 기사도 있다。

풍년이라하고 크게 부풀어 있는데 장마가 져서 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없지 않다。

제발 신문이 꽃밭처럼 아름답고 신나는 글로 메워질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을 신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다。

스위스의 어느 신문은 기사내용을 모두 밝은것으로 채웠더니 몇년이 지나 사회가 정말 밝아졌다는 얘기를 읽은 일이 있다。

나쁜 기사라고 안 실릴수는 없겠지만 그런것 제발 자제, 다뤄주고 멋진 기사를 크게 다뤄줄수는 없을까 하는것은 나의 바램만은 아닌것 같다。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좋은 한달을 만든다。

그것을 만드는것은 아무래도 아침신문 인것같다。

사람은 자주 접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동화가 되기 때문이다。

하루는 아내가 사회면을 보더니 버스 추락사고로 겨우 두명 밖에 안죽었어, 하는것이 아닌가。

하도 엄청난 사고들이 터지다가 두명이라니 시답지않게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이거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뒤통수를 때린다。

<언어문화원장>

나는 신문의 가정란을 보고 그날의 강외에 대한것을 생각한다。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꾸민것이고보면 나에게는 큰 자료가 안될 수없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가정란보다 사회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좋은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것은 더욱 많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회가 온통 범죄와 소굴같은 느낌이 들어 오싹할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 도를 넘어서 드릴(?) 같은것을 느끼게된다。

이런 나를 보고 그이는 아무래도 신문을 끊어야겠다고 잔담 반 농담 반의 소리를 종종한다。

나 역시 이런 사회면이라면 볼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도 신문이 오면 이제는 사회면을 먼저 보지않고는 못배기는 체질로 바뀌어지는것을 알게된다。

내가 철저히 독종이 된것인지 무디어진것인지 몰라도 아무리 큰 사고나 눈앞의 기사를 보아도 그냥 덤덤한 느낌이 드는것이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오염(?)된것은 사실이다。

나라면 어떻게 신문을 만들것인가 하고 생각해 본다。

식탁위에 한가지 반찬만을 놓을수는 없다。

고추장, 잔장, 된장찌개, 김치, 짜무기, 어차피 내가 신문을 만든다고 해도 더 이상 좋은 방법이 나올리가 없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좋은 해석이 아닐까?

「이게 아닌데…」하고 생각하다가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아량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기자가 기사를 쓸때 독자를 생각하고 쓰고 독자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가를 이해 한다면 이 사회는 보다 멋진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것이 아닐까?

<아내교실 실장>

<다음 주제는 「독서」>

걸작만화

"The only thing she does on time is buy on it."

『제때에 하는 일이라곤 사들이는것 뿐이라네。』

한국일보 詩壇

세번의 바다

金年均

1

너는 나를 반겨준다
소금에 절은 짭짤한 바람으로
햇살을 개조하는 눈부신 금빛 파도로
하늘을 굽맞음하는 머나먼 수평선으로
너는 와서 나를 반겨준다
또는 갈매기 띄워서 날려보내며
뱃고동 소리를 울리게 하며
너는 나를
반겨준다
순결한 마음을 외치면서
悪의 동굴 캐내면서.

2

너는 살아있다
너는 언제나 내앞에서 살아있다
슬플 때나 외로울 때 또는
마음의 視野에 어둠이 와서
창을 열어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를 찾아와 길을 물으면
너는 가르쳐 준다
연약한 내가 가야할 길을
그 길이 나에게 어떠한 길인지를
너는 앞에서 가르쳐 준다
죽음의 마지막 길까지도
너를 따르는 길까지도
너는 모두 가르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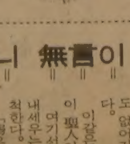
3

너와 같이 지내고 싶다
평생을 붙들리듯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살면서 지내고 싶다
그리하여 너는 무어고 나는 무어지
애당초의 일부터 살피고 싶다,
바다여, 내 앞에서 무한한 바다여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며
나는 왜 너에게서 연약한가
깨닫고 싶다.
그리하여 나도 너처럼 바다가 되고
사람을 부르는 바다가 되고
그러고 싶다, 바다여 바다여
오늘도 또다시 너에게 온 나는.

文豪의 名言

老子

<生沒未詳>



中國古代의 思想家。道家(老莊思想)의 開祖。楚國의 苦縣(河南省鹿邑縣) 출생으로 돼있음。名은耳, 字는聃 姓은 李。

饒舌은 자주 막히게되니 無言이 으뜸이라

天地는 長久하다。

그天地가 長久한 까닭은 자기스스로가 살려고 하는 의식이 없기때문이다。그러므로 長久하다。

× × ×

老子의 傳記중 가장오랜것이 「史記」이다。거기선 먼저 老聃에해당하는 인물이 周나라 守藏室의 관원을하고있어, 孔子가 그에게 禮를 물은 일도있었다。

후에 周가 쇠한것을보고 國外로 몸을 피하려했다。

국경에 이르렀을때 그곳을 지키던 관원이 말했다。「선생님 몸을 피하시기 전에 나를 위해 뭔가 책을남겨주십시오」그래서 上下두권, 計5천여語의 책을써서 주고는 떠났다고。

이어 「史記」에선 孔子와 同時代의 老萊者 또는 前370년에 周나라 歷史官의 長이던 太史儋, 일지모른다고 했다。

이미 前漢때 偶像化됐던것같다。

老子의生存年代에 대해선 학자들사이에 孔子의 약간 선배라고하는 春秋時代說, 戰國時代초라는說, 「孟子」에 언급한 말이 없어, 孟子후의 戰國中期說등 여러가지가있다。假空人物이란 사람도있다。또한그의 저서로 돼있는「老子」(老子道德經)는 한꺼번에 된것이 아니라고 하며, 現存의것은 빨라도 漢初에 된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老子의哲學思想이라면 첫째 「無爲自然」의 道가 있다。

道 그자체는 無爲 空虛이나 萬物을 낳게 하는 根源이며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않는 無限定의것이라 했다。

이같은 無爲 自然을 터득한사람이 聖人이다。

여기선 仁義같은 것을 요란하게 내세우는것을 人爲라해 엄격히 배척한다。

「弱은 強에 이기고 柔가 剛에 勝한다」天下 모르는바 아니로되 잘 행해지지 않는다」「功을이루면 몸을 빼는것이 天下의 道」라고도 했는데 이는 現實社會에서 도피하려고하는 隱士의 理想으로 본는이도있다。그러나 또한 保身의 處世術로도 생각된다。名利에 지나치면 불안한 세상에선 상처받기가 쉽다。

결국 生을 완수하고 나아가 세속적 성공을 가져오는 功利的·현실적인 생각이라는것이다。老子의 흐름을 따르는 道家의 思想은 儒家의 그것과 함께 中國社會에서 2大思想이라 했다。

人爲的·官僚的인 儒家에의 對立이 그렇게 인정받은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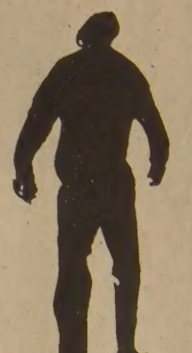
또한 佛敎가 그概念을 利用한 후부터 深遠한 것으로 됐다。

神仙術과 道敎를 뒷받침했고 文學과 예술에의 영향도 크다。

「饒舌은 자주 막히게된다。無言을 지키는것이 제일이다」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㊶



金洪信 作
崔然石 畫

지난줄거리

춘찬은 학생들에게 차비를 털어주고 나자 수표밖에 없었다. 여관에서는 속초의 은행에서 바꿔주지도 않지만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터무니 없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는 걸 알았다. 춘찬은 명식이의 동정을 팔아주기 위해 서유리라는 썩 괜찮은 여자를 산다. 유리는 그냥 몸 파는 여자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여자였다. 춘찬의 음모에 행운이 따르길 빌고 싶은 사건이 진행된다.

서악동에서 흘러 내리는 계곡물소리는 여전의 신비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자연 그대로를 파괴 당했으면서도 원시의 신음소리를 내는 계곡이었다.

우리는 마른 안주를 흩어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초조해지는 시간이었다. 명식이는 약간 술기운이 올라왔는지 다리병신이라는 제약 때문에 생겼던 서글픈 과거 얘기며 딱 한번 진실로 사랑했던 여자와 헤어진 얘기 따위를 늘어놓고 있었다.

『난 판사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법 안지키는 놈들 사그리 패대기 쳐서 올바른 사람만 사는 나라를 만들 거다.』

그 말은 그의 버릇이었다. 우리학교에서 명식이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것은 명식이가 두번째나 1차시험에 패스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의 실력이 남다르다는 데 있었다.

나도 녀석만은 이번 2차 고시에 틀림없이 패스할 걸 믿고 있었다. 비록 육체는 절름발이인 판사이겠지만 정신만은 누구보다도 나은 판사가 될 녀석이었다.

『네 맘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넌 해낼 수 있을 거다.』

『네 그 폭행솜씨도 사실은 위법인 거다. 나한테 걸리면 그것도 용서받지 못해. 친구 아니라 친구 할아버지라도 말이다.』

『법적으로는 죄가 안되면서 못된 짓을 일삼는 녀석들은 어떻게 하란 말야. 그런 놈들이 하나 둘이어야 말이지. 그리고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벌을 주지 못하는 놈들은 어쩌고?』

『네가 잡으면 되잖아.』

『내가 네 솜씨 발휘하게 하는 도구냐? 나 먹고 살게 해줄래.』

『네 일생을 내가 책임지지.』

『크어! 살맛 난다.』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얼추 시간이 된 것 같았다.

소나무 숲 사이로 여자의 가쁜 스리와 어지러운 발짝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우리들 쪽으로 가깝게 다가왔다.

『뭐야?』

우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가 허겁지겁 우리쪽으로 뛰어와 주저 앉았다.

『저 좀 구해주세요. 깡패들이…』

숨가쁜 여자의 소리 뒤에 건장한 사내들 소리가 뒤따라 왔다.

『저 새끼들.』

명식이가 뒤뚱거리며 바위 옆으로 나섰다. 나는 여자에게 윈쪽 눈을 껌뻑해 보였다. 여자도 윙크를 보냈다. 사내들 네명은 우리를 둘러쌌다.

명식이가 앞뒤 사정 가리지않고 앞에서부터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 상대가 손발 빠른 사내들이란걸 알 턱이 없었다.

내가 달려드는 척하면서 명식이와의 거리를 좀 이격시켰다. 명식이는 열심히 헛손질을 하면서 사내들을 따라 잡았다. 나는 두 녀석을 상대로 하는 척하고 유리를 명식이 쪽으로 피하게 만들었다.

명식이는 전혀 뜻하지 않게 사내 두명을 해치우고는 유리를 붙잡고 나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처럼 날렵하고 빨랐다.

『어떻게 됐어?』

『해치웠어.』

『이 새끼들 넘기고 갈테니까 집에 가있어. 그 아가씨 위험하니까 데리고 가. 빨리.』

『그래 조심해.』

명식이는 유리를 데리고 계곡을 건너 산장 쪽으로 갔다. 나는 사내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쪽 어땠읍니까?』

명식이와 맞붙었던 사내들은 팔목과 어깻죽지가 아프다고 했다.

『말도 마십쇼. 한대도 때려선 안된다디 그게 어디 상대가 됩니까. 괜히 피하다가 악바치는 매만 맞았지요. 내 생전 이런 싸운 첨입니다.』

맞는 말이었다. 한쪽은 성질 나서 덤비는 쪽이었고 다른 한쪽은 때려선 안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조작된 싸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게 내가 한잔 사겠다는 거 아뇨. 자 갑시다.』

나는 사내들을 데리고 호텔 쪽으로 발길을 돌려 잡았다. 사내들은 계곡물에 손발을 씻고 담배를 한개비씩 빼어 물었다.

『춘삼이 형님이 기다리시던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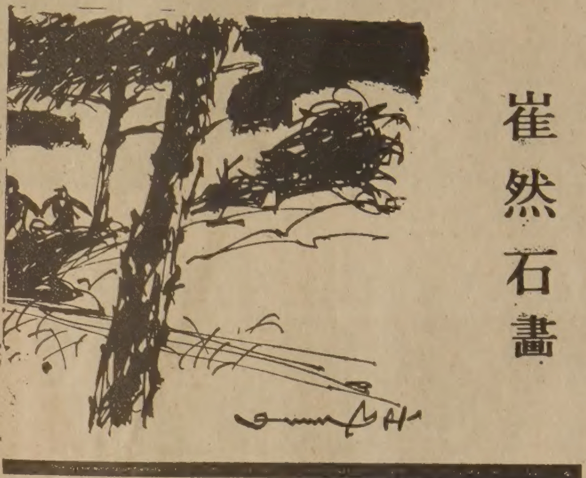
한 사내가 이렇게 말했다.

『춘삼이 형이?』

『꼭 같이 오라던데요.』

『그 양반 웬 일로 여길 왔을까.』

『좋지 않은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서 왔았던 모양입니다.』



다리는 절었으나 해치우는 솜씨가 성한사람 못지않아
童貞인 青年에게 그애가 人生工夫 잘시켜줄런지 몰라

『그 양반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런 사업이죠.』

녀석들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춘삼이 형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당한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으리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넓은 특실을 차지한 채 술상을 앞에 놓은 춘삼이 형은 내가 들어서자 큰 팔을 벌리고 손을 내밀었다.

『너 아직도 팔팔하구나.』

『형, 정말 오랜만입니다.』

나도 춘삼이 형이 반가왔다. 한곳에서 어울려 살던 때가 그리웠던 것이었다. 얼마나 신바람 나던 때의 일인지 모른다. 깡치 형과 춘삼이 형은 언제나 적수답게 으르렁거렸지만 나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를 끔찍스럽게도 아껴 주었다.

『널 좀 만나려고 안뒤진 데가 없었는데. 하필 여기서 만나다니 원.』

『공부나 할까하고 나돌아 다니질 않았어요.』

『너 판사될 거냐?』

『생각 중입니다.』

『넌 검사가 제격일텐데.』

『글쎄요.』

『그나 저나 술이나 들자.』

우리는 술잔을 부딪쳐 가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깡치 형과 같이 어울릴때 우리들 세사람은 술 실력도 거의 비슷비슷했었다.

누가 가장 술이 센가 하는 시합을 벌이다가 세 사람 모두 배갈 아홉병씩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간 적도 있었다. 그래서 단숨에 사발에 따라 마시며 까지 겨룬 승부를 그 이후엔 내본 적이 없었다.

『너, 지금도 그렇게 마셔대냐?』

춘삼이 형이 물었다.

『맘만 먹으면 그 배보다 두곱은 먹을수 있지요.』

『부럽다. 난 반도 못먹겠더라.』

『그러게 늙으면 죽어야 돼요.』

『임마, 아차각이 질기게 살 판이다.』

춘삼이 형을 따라 다니는 친구들이 얌전하게 앉아 있어서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까 연극판을 벌여주었던 친구들에게 술 사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저 친구들한테 술 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알아, 얘기 다 들었어.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놨어. 옆 방에서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도록 했으니까. 그나 저나 네 친구 복도 많다. 어쩌된 거야?』

춘삼이 형은 명식이 일이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그 녀석 아직도 동정이래요. 그래서 장가 좀 보내줄까 하고.』

『기특한 애가 아직도 있구나.』

『안된 놈에요. 여자한테 영 자신이 없어서… 인생공부 좀 시키는 거죠.』

『유리, 그 애가 잘해낼거다. 지배인 녀석이 네가 왔다고 하길래 알아서 모시라고 일렀지. 네 솜씨도 여전하다더라.』

『에이, 형이 시킨 거군요.』

『네 힘이 필요해서 녹 슬었나 보려고 그랬지.』

『난 이제 방어할때 이외엔 주먹질 않고 살겁니다.』

『어련하라구. 술이나 들자.』

『유리라는 애가 꽤 괜찮아 보이던데 잘 해낼까 모르겠어요.』

『걱정마. 걘 해낼 애야. 그리고 절대 비밀도 지킬 애지.』

『글쎄, 애가 맘에 꽉 차던데.』

『생각 있으면 말해.』

『차암….』

내 가슴 속에선 부정할 수 없는 욕망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밤 가슴을 끌어안고 자고 싶었다.

『내 사업 좀 도와줄래?』

술잔이 서너 순배 돌고 나자 춘삼이 형은 이렇게 말을 꺼냈다.

『내가 뭘 알아야죠.』

『나쁜 거 아냐. 날 못믿겠으면 그만 둬도 좋아. 그러나, 얘길 들으면 네가 포기하진 않을 거다.』

나는 춘삼이 형의 진지한 태도에 의심이 났다.

『형은 무슨 사업하는 겁니까?』

『나, 하두 이것저것 해봐서 넌더머리가 난다. 지금은 기름장사 좀 하구 있지.』

『기름 장사요?』

『응, 넘하고 같이 하구 있어. 내 주력사업이야 건축업인데…불황이니까 까먹고 앉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놈의 가짜 휘발유 만들어 파는 애들이 문제야.』

『휘발유도 가짜가 있어요?』

『그놈의 가짜가 진짜하고 구분하기도 어렵게 만들어지고 자동차도 잘만 가니까 문제지.』

『그거야 가짜치고 일품인데 그래요. 외화 줄여주는 애국상품 아닙니까?』

『나도 첨엔 그런 생각 했었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 삼천리 강산을 좀먹는 공해생산만 하는 거지. 위험스럽고 사람을 잡아먹는거니까 문제지. 그게 좋은거라면 왜 나라에서 그걸 막겠어.』

『그렇군요.』

반은 맞는 말이었다. 부정 휘발유가 보통 휘발유보다 두곱이나 싼것인데도 나라에서 처벌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일것 같았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전국의 주유소 가운데 그 비빔밥(가짜 휘발유를 그 사회에선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을 사용하지 않는곳이 거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다. 알고 쓰는 곳도 적잖겠지만 모르고 쓰는 데도 물론 있어. 한심한 노릇이지. 빨리 뿌릴 뽑아야하는데 워낙 뿌리가 깊어서….』

의리의 사나이 춘삼이 형이 이렇게까지 정의로운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을줄은 몰랐다.

『물론 내 현업 사업이고 내 사업상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서 좀 저럽시스럽다만… 사실 이런 일은 누군가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다. 쓸만한 두뇌가 네 주변에 많으니까 말이다. 나야 주먹솜씨 좋은 놈밖에 가진게 없어서 어려워. 네가 좀 나서봐라. 필요한 경비는 내가 줄게.』

떼부자 될 가짜 기름판매조직、뿌리뽑을 가치 있다 믿고
호텔방에 半裸의아리따운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줄야

『글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 혼자서야 어디….』

『아냐. 이건 너 혼자 뛰어야 돼. 개들 비빔밥 만드는 애들이 얼마나 눈치 빠르고 조직적인지 어떻이 움직였다간 눈 씻고 찾아도 볼 수가 없어. 내가 혼자 나섰다가 갈비싸만 왕창 나갔었잖아.』

『그렇게 조직이 센 거요?』

『그건 아냐. 먹고 사는 일과 직결된거라 인사불성야. 한 드럼통 팔면 몇 만원씩 남는 데다가 한차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70만원, 경비 모두 빼고 앞짜로 남는 거니까 모가지 걸만 하지.』

『한달에 한차만 빼도 먹고 살겠네요.』

『한차면 좋게. 수십대씩 빼낸데.』

『지, 떼부자들이구만요.』

『말해서 뭐해.』

『주요소 주인들이 어째서 그 비빔밥을 쓰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한드럼면 4천원 밖에 안남는 박한 장사거든. 전기료, 인건비, 기타 운영경비 빼봐. 그러나 비빔밥 섞어 팔면 얼마나 이익야. 드럼 당 몇만원이 남는 장산걸.』

『한드럼 사면 주유소에선 얼마나 남는거예요.』

『한드럼에 11만원에 들어가는 것같으니까 적어도 3만 4천원 꼴이겠지. 생각해봐. 어느 놈인들 않겠어. 4천원 남는 장사가 3만4천원장사로 뒤집어지는데.』

『정말 그런데요.』

내 가슴 속에서 갑자기 호기심이 복받쳐 올라왔다. 그런 조직을 잡아낸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번 달려들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같았다.

『뭐든 알아야 덤비든 한 거 아네요.』

『나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주유소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도 진짜지 가짠지 알 수가 없는 걸. 색깔도 같고 냄새도 같고 휘발성도 같은 걸. 그렇다고 과학적인 기재를 들이댈수도 없고. 다만 그런 조직이 수도 없이 많다니까 냄새만 잘 맡으면 쉬울거야. 예를 들어서 운전사네 집에 감추어둔 휘발유통이 있다든지. 그럴 땐 되도록 개인택시 운전사를 추적해야돼. 회사택시는 차주 말고도 운전사를 쓰니까 그런 기름이 먹히지않지. 개인택시야 그런 기름 몰래 사서 쓰면 굉장한 이익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형은 어째서 못잡았어요.』

『한건 올리나부다 했지. 그런데 막판에 녀석들한테 걸려서 작살난 거지. 꼬리도 없고 흔적도 없으니 알 재간이 없잖아.』

『그렇다면 서울 변두리쪽으로 나서봐야겠군요.』

『맞아.』

우리는 밤늦도록 부정 휘발유에 대한 얘기를 했다. 나는 서서히 피가 끓는 것을 발견했다.

『왜 못잡고 그럴까요?』

『워낙 치밀하니까 그렇지. 들리는 말로는 잡히면 한차분의 이익금 70만원을 현금으로 딱 내놓고 해결한단 말도 있어.』

『그렇게 나오면 나라도 봐주겠는걸요. 사는 것도 구구각색이네요.』

나는 마음 속으로 그런 친구들을 잡아보고 싶었다. 내 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내 손으로 한 건이라도 해결해보고 싶었다.

『생각해 보지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일어 서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는 싫었다.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내라는 걸 강조해 두고 싶었다.

『임마 가긴 어딜 가. 충분히 대줄테니까 대답해 버려.』

『얼마나 주려고 그래요?』

『얼마 주면 돼?』

『꽉 주고 싶은 생각이면 13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줘요.』

내 머리 속에는 명식이를 위해 조용히 공부만 할 수 있는 아파트 한 채가 꼭 필요할 것 같았다.

『새애끼. 좋아. 해줄께.』

『미안해요. 형한테 흥정해서. 명식이 저 녀석 공부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판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좋아. 이번 일과는 상관없이 그건 해줄께. 네가 안해도 좋아. 하다 말아두 좋구.』

나는 춘삼이 형의 뜻을 알았다. 그렇게 나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내 의리를 알고하는 소리였다.

『좋아요. 하죠.』

나는 허락했다. 춘삼이 형은 내 손을 굳게 잡아 주었다.

『우리 오늘 기념식 한건 해치우자. 어때, 맘 당겨?』

『뭔데요?』

『괜찮은 애 두어명 대기시켜 놨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하던 기념식 같은 거지.』

나는 잠시 망설였다. 다혜의 얼굴이 불쑥 튀어 나왔기 때문이었다. 나를 내 팽개쳐서 춤추던 내 얼굴을 망가뜨린 여자였지만 미워할 수 없는 여자였다. 이번 여행을 같이 왔더라면….

나는 그녀를 훔쳤을 것이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혜를 내 소유로 확정지으려고 얼마 전부터 벼르고 있는지 모른다.

『임마, 네가 망설이는게 어울리지 않아.』

『그래요, 그래요.』

나는 그 순간에 다혜를 훔치고 싶었던 그 욕정이 폭발되는걸 느꼈다. 그리고 명식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리한테 동정이라는 그 귀찮은걸 넘겨준다는 데에도 자극을 받았다. 다혜의 앙칼진 목소리에 대한 복수심도 떠올랐다.

하나님. 이 못생긴 엉덩이를 좀 흔들어 보겠읍니다. 눈을 감으세요. 사는게 다 이런 거랍니다. 스물두살 짜리 팔팔한 사내의 아랫도리에 평화를 주세요.

춘삼이 형은 애들에게 나를 옆방으로 모시라고 일러 주었다. 나는 산장에 전화를 걸어 오늘밤 못들어갈 일이 생겼다고 했다.

호텔방을 열고 들어섰다. 내 강심장도 깜짝 놀랄만큼 아리따운여자가 반옷을 벗은 채 나를 맞았다. 나는 그녀 앞에 서서 숨을 몰아 쉬었다.

(다음호에 계속)

競爭社주식 50%이상取得 금지

企劃院 企業의不當結合 심사기준 마련

市場占有率도 50%안되도록

他社資本이상의 債務보증도

50%미만이라도 大株主·市場지배못해

큰影響주는 직원兼職·營業一部양수도

정부는 기업의새로운獨寡占化와소수기업에의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려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시행에따라 시장과경쟁기업 지배를위한他社주식취득, 任員겸직, 合倂, 중요營業讓受, 새로운 회사설립등 부당한 기업結合에대한 審査기준을마련했다. 16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마련한 이審査기준에따르면 경쟁관계의 他社발행주식(또는 출자금액)을 50%이상 취득하거나 50%미만이라도 大株主가 취득한 주식을포함, 주식소유비율이 제1의 大株主가 되거나 任員파견, 他社자본금규모이상의 貸與나 債務보증, 주된영업일부讓受, 원자재의존등 계열관계가 있을때는 일단 기업支配관계가 형성되었다고보고 이를통해 시장을 지배할때는 정부로부터 解體, 환원등 是正명령을 받게된다.

市場지배여부에 대한 기준은 마키트세어가 50%이상되는경우, 50%미만이라도 시장점유율이 제1위인 경우, 시장점유율이 3위이내라도 상위3사 시장점유율 합계가 70%이상인경우 또 여타경쟁회사가 극소수인경우가 해당된다.

他社임원겸직이 금지되는 경우는 경쟁관계나 원재료의존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經營활동에 영향을 줄때 해당이된다. 회사合倂이 금지되는 기준은 시장점유율이나 경쟁관계변화를 우선 감안하되 合倂으로 他경쟁회사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지나치게커지거나 자금, 경영, 기술면에서 새로운기업이나代替品참여가 어려울때는 정부의解體명령을받게된다. 중소기업등을 비롯한 대기업의 垂直合倂은 그것이 큰 중소기업의 販賣先이나 원료購入先을 뺏을 우려가 있을 경우등에 대해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밖에 시장지배를 위한 새로운 회사설립은 금지되며 덤핑을 해서 상대회사에 타격을 주거나 압력, 高價주식 매입조전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주식의 취득, 임원파견, 영업讓受행위도 금지된다.

현행공정거래법은 기존독과점상태는 인정하되 더이상의 독과점화는 방지한다는취지아래 他社10%이상취득이나 기타임원겸직, 合倂등 새로운 기업結合의 우려가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정부의 是正명령을 받은기업結合대상기업이 이에 불응할때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7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다.

韓日議員聯盟 대표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6일하오 청와대에서 韓日의원연맹총회에 참석한 한국측의 李載瀅회장등68명과 일본측의 야스이·겐(安井謙) 회장등 54명을 접견, 리셉션을 베풀고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는 마에다(前田利一) 駐韓일본대사도 참석했다.

◇16일 韓日議員聯盟총회개막식에 참석한 兩國의 重鎭들。앞줄左로부터 金鍾哲국민당총재, 南悳祐국무총리, 丁來赫국회의장, 李載瀅한국측회장, 야스이日本側회장, 가스가日本側고문。

88年 올림픽誘致 실현노력

朴서울市長 "施設60% 진척…개최 萬全"

IOC總會에 곧 대규모代表團 파견

◇朴서울시장

서울시는 오는88년도 제24회 올림픽대회를 기필코 서울에 유치한다는 목표아래 오는30일 西獨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제84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총력 유치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朴英秀서울시장은 16일상오10시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및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결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朴시장은 이날 회견을통해 『서울시는 정부와 국민의적극적인 뒷받침아래 오는88년 올림픽대회를 유치하기로 결정, 이미 지난 2월에 개최신청서를 IOC에 제출한바 있다』고 밝히고 『「올림픽정신을 세계에 전파한다」는 올림픽 헌장에따라 올림픽을 개최한적이없는 서울에 대회를열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曺相鎬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이 배석한 이날회견에서 朴시장은 『인류의 평화와 친선의 상징인 올림픽의 대제전은 南北이분단된 현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이바지할수있다는 면에서도 서울유치는 큰의의가 있는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소련·체코등 모든 국가와 스포츠교류를 하고있을뿐만 아니라 올림픽제전의 서울유치를위해 정부에서도 IOC헌장을 준수, 모든IOC회원국의 선수·임원및 관광객의 자유로운 입·출국과 국내활동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朴시장은 또 『올림픽대회 유치를위한 시설정비와 체육시설건설및 확충이 현재 60%정도 진행되어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및 산하 각경기 연맹은 올림픽경기에관한 제반절차및 사항에 정통하고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등 여러국제경기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경험을 갖고있어 올림픽경기운영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림픽대회 유치를 추진하기위해 설치된 「서울올림픽준비위원회」는 이번바덴바덴 IOC 총회에 朴英秀서울시장을비롯 鄭周永서울올림픽 준비위원장, 曺相鎬대한올림픽위원장, 劉彰順대한국무역 협회장, 李源京대한올림픽위원회고문, 李元洪한국방송공사사장등6명의공식대표단과 金雲龍 세계태권도연맹총재 全祥振대한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 張盛煥한국무역진흥공사 사장등 경제계·언론계·체육계인사 25~30명으로구성된 대규모유치대표단을 파견키로결정하고 오는18일 1진이 출발하며 朴시장등 공식대표단은 23일 현지로 떠날예정이다.

埃、蘇大使를 追放

公館員 6명·專門家·記者등도

反政使嗾 혐의

【카이로15日AP聯合】 이집트는 15일 이집트주재 소련대사 블라디미르·폴리아코프(48)와 6명의 대사관 직원등 소련외교관 7명에대해 48시간 이내에 이집트를 떠날것을 명령하고 소련대사관직원수도 1주일안으로 대폭 줄이도록 요구했다.

관영중동통신(MENA)은 이날 보도된 호스니·모바라크 부통령주재의 각료회의성명은 이집트가 이들 소련외교관들을 『기피 인물』로 규정, 추방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와함께 카이로주재 소련대사관군사연락관및 모스크바주재 이집트대사관 군사연락관을 폐쇄시키는 한편 국제계약에따라 이집트에서 활동중인 모든 소련전문가들도 이집트를떠나도록 명령했다.

이성명은 또 타스통신기자 1명, 트루드紙 기자 1명등 이집트에서 활동중인 소련기자 2명과 헝가리대사관직원 1명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 48시간 이내에 이집트를 떠나도록 명령했다.

"한국防衛노력 誠意있게 協力"

貿易逆調 시정·關稅장벽 철폐

韓日議員聯、오늘 共同聲明

韓日의원연맹 제9차 합동총회가 17일의전체회의를 끝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閉幕한다。 韓日 양측대표단은 16일상오의 開會式과 하오의 4개分科委별 회의에 이어 합동운영위원회를 열고 10개항의 공동성명 文案을 확정한것으로 알려졌다。 ★兩國基調연설·관련기사2면

17일 閉幕과동시에 발표될 공동성명은 安保와 經協을 직접 관련시키는 언급대신 『日本은 한국의 방위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過重한 국방비부담에 의한 어려운 사정에 깊은 이해를 표시하고 성의있게협력 노력할것을확인했다』고표현할것으로알려졌다。 공동성명은 또 ▲日本은韓半島의 전쟁재발抑制와 평화통일을위한 全斗煥 대통령의 1·12및 6·5제의를 전폭 지지하며 北韓이 조속히 이를 수락하도록 촉구한다는 대목을 포함시키며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2백억달러의 對日무역 逆調시정을촉구하고 日本이 한국상품의 수입촉진과 關稅·非관세 장벽의 철폐와 기술협력등으로 적극 是正策을강력히 촉구하며 日本은정부에 계속개선을건의、문제해결에 노력하기로약속한다는 조항을두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는 16일하오 安保外交、社會文化、經濟、在日한국인法的지위등 4개分科委별로 회의를열고 朴敬錫의원(民正)과 日本의호리에·마사오의원(堀江正夫)등8명의 韓日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의를 벌였다。 이에앞서 이날상오 신라호텔에서 양국의원 2백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열린 개막식에서 한국측대표들은 소련의 팽창주의와 北韓의 군비증강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을위해일본측의 적극적인 經濟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해 일본대표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을 포함한 東北亞의안정에긴요하며 한국의 5개년경제계획을 위해 日本에 차관을 요청하는 眞意는 충분히 이해하나 국민의 합의나 單年度예산편성 제도와 對外協力의 관례등 국내사정을들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李載瀅한국측 회장은 이자리에서『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政經분리정책이란 위기의 80년대 국제사회에서는 용납될수없는 利己主義로 낙인찍힐수밖에 없다』면서『양국은 한반도 정세파악을 중심으로 한 東北亞안보문제에 있어서 한치의 견해차이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스이·겐(安井謙) 일본측 회장은『一衣帶水관계에 있는 日韓 양국이 새로운 시야에서 新時代의 확립을 기하는것은 자연스런 흐름이며 일본이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가능한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것은 당연하다』고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丁來赫국회의장, 南悳祐국무총리의축사에 이어 스즈끼(鈴木善幸)日本수상과 日本衆參議院의장의 축하메시지가 낭독됐는데 특히 스즈끼수상은『한국은 日本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隣國』이라고 강조한후『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되기위해 국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점보惨事」 一步前 KAL機 활주로밖 突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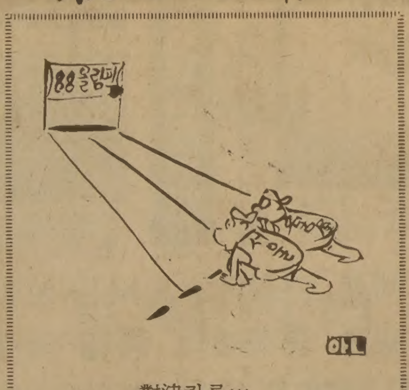
◇마닐라공항이륙에 실패한 KAL보잉747점보여객기。 서울발 취리히행인 사고여객기는 승객과 승무원등 3백78명을 태우고 중간기착지인 마닐라공항을 이륙직전 엔진고장으로 활주로 담밖으로 돌진, 승객등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여객기주변에 필리핀공군들이 경비를 서고있다。 ★관련기사 11面 【마닐라16日AP電送=聯合】

3黨총무·黨代表질문등 合意

民正·民韓 국민당등 3黨 부총무들은 16일상오 모임을 갖고 이번정기국회에서 對정부 질문의 議題를▲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등 3개분야로하고 黨대표질문도 3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豫決委의 구성인원을 국회법상의 上限線인 50명線으로 하기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對決키로…

全北道 교육감 柳在新씨 임명

정부는 16일 全北도교육위원회 교육감에 柳在新全州고교장을 임명했다。

◇신임 柳교육감略歷 ▲全北長水郡출신 54세 ▲全州고교교감▲全北도교위장학관▲三禮綜合고교장▲全州고교장(80년)

埃 反政음모摘發 蘇KGB 關聯등

【카이로15日AP聯合】 이집트 정보당국은 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을 실각시키려는 2건의 새로운 음모를 적발했다고 카이로신문들이 15일 보도했다。

카이로신문들은 사다트대통령정권을 전복하기위한 첫번째 음모에는 이집트의 舊와프드黨과 당의장인 푸아드·사라게딘이 관련되어있으며 두번째 음모에는 소련비밀경찰인 KGB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蘇、關聯說을否認

【모스크바15日AP聯合】 소련은 이집트 국내사태와 관련하여 카이로주재 소련대사를 추방한 이집트 정부조치에 크게 반발할것으로 보이나 이책이 변경될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서방측외교관들이 15일 말했다。

한편 타스통신은 14일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정권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소련이 관련되었다는 이집트정부주장이 이집트내에서 反共및 反蘇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고의적인 날조라고 말했다。

地平線

大企業들의 入社試驗이 한창이다。 수백명내지 1천명씩 모집하는 대업체들마다 1만명을 넘는 젊은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한데 올해의 특징은 필기시험은 형식적이고 소속학교의 추천이나 서류전형및면접에 중점을 두고있는 점이라고한다。 한두 시간의 필기시험보다는 인물관찰、평소의 교육내용을 중시하려는경향을 보이고있는 것이다。

▼人物감정하면생각나는대상이 중국齊나라때의 名宰相孟嘗君이다。 食客을 수천명이나 거느리고 있던 孟嘗君은 食客新入희망자가 있으면 곧잘 직접 면담을했다。 병풍뒤에 참모를 숨겨두고、문답의 요점을 한사람 한사람 필기시키면서 새食客의 눈동자、매너까지 채점케한다음 스스로의 채점과 참모의 의견을맞춰보고 食客의 대우를결정했다。밥만먹이는 三等宿舍、생선고기반찬이 나오는 二等宿舍、專用馬車까지 마련해주는 一等宿舍에 삼천명까까운食客들이 모여 政論을 나누고 論議를 거듭했으니 오늘날의 綜合商社 新入社員 채용시험 못지않은 熱氣를 상상할수 있다。

▼모 재벌에서는 올해 新入社員배치에 참고하려고 重役自宅을 방문시켜 禮節이나 約束度、對人관계까지 테스트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잘알려진 중국의 古代兵書六韜에 나오는 방법의하나다。 <間之以言 以觀其辭>이라고 직접대면해서 사람속과 능력을 알아보는것이다。 말이없던 사람이 難題의 打開策을 의외로 술술 털어놓을때가 있다。 <窮之以辭 以觀其變>질문을 연거푸 퍼부어 상대편의 변화를 보는 방법이다。 거짓말을 할때 눈동자를 굴린다든가 표정에 동요가 나타나는가를 보는 것이다。 <與之間諜 以觀其誠>슬그머니 반대의견을 내놓고 상대방의동향을 살피든가 사람을 보내 그 회사의 험구에 동조하는가 여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또<明白顯問 以觀其德>비밀을 털어놓는것 같이 해서 상대의 人德을 관찰하는 인물감별법도 있다。 입이 얼마나 무거운가、신용할만한가를 알아본다。 <使之以財 以觀其廉>돈을 만지게해서 정직한가 아닌가를 본다。 요즘말로 뇌물을좋아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試之以色 以觀其貞>美人計를 써보면 점잖은 선비들도 사람이 달라질수있다。 <告之以難 以觀其勇>곤란한 일을 말겨 용기를 보는것으로 決斷力을 알수있게 된다。 <醉之以酒 以觀其態>술을 먹여봐서 사람의 본성을 보는 방법이다。 ▼아무조록 취직시험을 잘 치르도록 젊은이들에게 이런 관점도 있다는것을 알려주고싶다。

주간女性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49
은: 온스당 US 10.3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SOME JEWELLEY

제 이름은 쏘메·쎄라로써 일본사람입니다. 3달전에 보석 비즈네스를 Open해서 날로 영업이 번창하고 있읍니다.

제 보석 비즈네스는 스토아를 갖고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주로 손님들의 주문으로 직접 공장에 연결, 가장 싼 가격으로 최고의 보석을 구입(품질보장)할 수 있읍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Office를 일차 방문하여 주시거나,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영어 또는 일본어로 말씀 하셔야 합니다.

⊙보석주문
⊙보석 디자인
⊙오랜보석을 다시 새것으로 개조
⊙보석수리 일체

주 소: 6105 YONGE ST. (YONG센터프라자)
전 화: 225-4641

쏘메·쎄라

NORTH-YOR BOARD OF EDUCATION

한글교실 개강과 학생모집

노스·욕시 81년~82년도 모국어 교육프로그램(한글교실)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장 소: 노스·마운트 쥬니어 하이스쿨(작년과 같은 장소) 70 Maxome Ave.

시 간: 1981년 9월24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6시~오후8시30분

학 급: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수업료: 메트로·토론토에 거주하는 학생은 무료
메트로 밖의 학생과 9학년이상의 학생은 25달러

연락처: 이 인 용789-73 2, 222-3076
김 문 고889-8290
MR. McKEOWN 225-4661(ex. 294)

〈노스·욕 한글학교〉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금주의 새 리스팅

도넛샾: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185,000

커피샾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2,500. 렌트: $1,225. 3년+3년옵션
가격: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5,500, 렌트: $750, 5년+3년
가격: $50,000
②주매상: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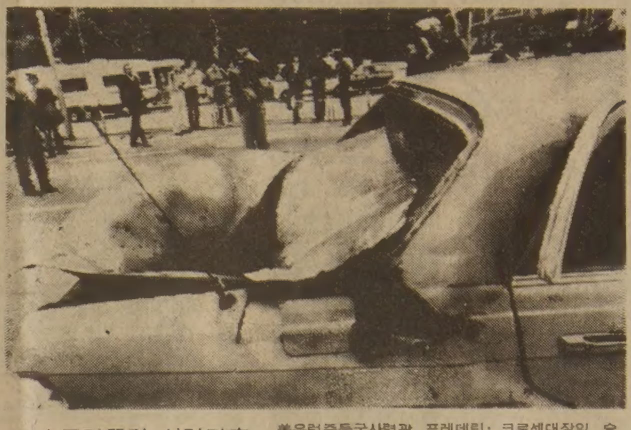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몰개지 잡아줌.
가격: $164,900

101 DUNCAN MILL RD. SU'T404
DON MILLS, M3B 1Z3
(B) 449-8644, (H) 286-1548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새議長에 키타니 선임

유엔總會 아세아圈 單一후보못내



◇구멍뚫린 사령관車 美유럽주둔군사령관 프레데릭·크로센대장의 승용차가 18일 西獨 하이델베르크 중심가에서 괴한들의 수류탄공격을받고 승용차의 뒷트렁크부분에 명중, 파괴됐다。이사고로 크로센대장은 경상만 입었다。【하이델베르크(西獨) 15日AP=聯】

新生바누아투 加入결의
百55國…百34개案件다뤄

【유엔本部15日=金泰雄특파원】아시아국가대표들이 단일의장후보를 내지못한가운데 15일하오에 개막된 36차 유엔총회는 추첨으로 의장을 뽑았다。

본·베흐마르 35차총회의장(서독대사)의 추첨으로 행운을잡은 금년도 총회의장은 지난 30년간 유엔대표로 일해왔으며 유엔사무차장보를 지냈던 이라크의 외무차관 이스마트·키타니다。

1차투표에서는 키타니가 64, 방글라데시의 카이저대사가 46, 싱가포르의 코흐대사가 40표를 얻었다。그러나 누구도 규정표 1백50의 과반수를 얻지못해 다수득표자들을 놓고 결선투표에서 키타니와 카이저가 각각 73표씩을 얻었다。베흐마르의장은 다시 투표하는대신 직권으로 추첨하여 양자택일한것을 제의, 의장석에서 흰봉투 중에서 후보의 이름을 써 넣은후 그중 하나씩을 뽑아 결정했다。

총회규칙에 따라 1981년은 아시아계가 의장직을맡게되어 있었으나 아시아대표들은 단일후보를 정하지 못했다。총회전에 지역대표들이 단일후보를 내지못한것은 유엔사상 19년만에 처음있은 이변이다。

의장에 취임한 키타니는 첫의제인 신생국의 가입안을 처리, 바누아투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얼굴
직업外交官출신의 유엔通
새議長 키타니 이라크副外相

◇키타니

【유엔本部15日聯合=聯】15일 개막된 제36차 유엔정기총회에서 금년도 총회의장으로선출된 이스마트·키타니 이라크부외상(52)은 故우탄트유엔사무총장과 현 쿠르트·발트하임총장밑에서 오랫동안 사무차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업외교관출신의 유엔通。

키타니 신임의장은 이라크의 아메디야에서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후손으로 태어나 美일리노이주 게일즈버그에 있는 크녹스 대학에서 정치학과 영문학을 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귀국, 잠시동안 고등학교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1952년 7월에 외무성에 들어가 외교관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키타니의장은 그후 유엔사무차장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본국 부외상으로 발탁됐다。

그가 이번에 우여곡절끝에 추첨으로 방글라데시의 카와자·모하메드·카이세르대표를 누르고 총회의장에 당선됨으로써 이라크는 오는 1982년9월 쿠바의 뒤를 이어 비동맹의장국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蘇 化學무기 百20회 撒布

美國務省보고서 泰國境軍, 방독면착용

【방콕15日AP=聯】소련은라오스와 캄보디아등지에 약1백20여회에 걸쳐 화학무기를 살포하여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초래한것으로 보인다고 15일 입수된 美국무성보고서가 밝혔다。

타이에 체류중인 라오스난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두권으로된 이보고서는 소련이 이른바 『黃雨』등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인명을 대량 살상한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완전하고 공정한』국제조사를 요구하기에 충분한심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콕16日聯合=聯】태국의 캄보디아국경순찰대는 베트남의 화학전부대의 공격에대비, 가스마스크를 최근 착용하게 됐다고 태국군의 한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그는 베트남군대가 독가스를 사용하고있다고한 캄보디아난민들과 탈주자들의 증언이 태국군의 화학전문부서에서 사실로 판명됨으로써 가스마스크가 지급된것이라고 말했다。

사다트의 「計算된 政略」

顚覆음모에서 外交官추방까지

國際焦點

5년간 4번째…蘇介入경계
戰略요충…蘇側선달래기만
〝回敎國보호〞명분 美軍事시설 늘려

이집트의 反政인사검거선풍은 결국 이집트주재 소련외교관의 추방으로 번졌다。

이집트내 선동은 소련외교관들의 추방이유를 『이들이 이집트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한편 최근 회교·기독교도간의 종교분쟁을 선동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했기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집트정보기관은 지난6월 카이로에서 발생했던 회교·기독교도간 유혈충돌이 소련에서 수학한 콥트교도인 한대학교수 선동에의한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었다。

그리고 KGB의 사다트전복음모관련설이나 종교분쟁에 소련이 개입했다는 사다트 대통령의 잇단 비난은 소련외교관추방의 前奏였던것 같다。

故나세르 대통령 시절만해도 긴밀한 우방이었던 소련이 이처럼 봉변을 당한건 처음은 아니다。카이로주재 소련외교관 감축사태는 지난5년래 이번이 4번째다。이러한 조치는 번번이 소련이 사다트정권 전복음모에 간여했다는 이유로 취해졌다。열렬한 회교신자인 사다트대통령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 저대적이었고 따라서 소련의개입의도를 항상 경계해왔다。

그는 72년에는 북괴대사 입용선을 反정부학생데모에 간여하고 카이로주재 한국외교관에 도발했다는 이유로 추방하기도했다。

양국의 불화는 71년, 사다트가 알리·사부리부통령이 이끄는 親蘇정치지도자들을 정부전복기도혐의로 체포, 재판하면서 시작됐다。

소련은 그때 즉각 코시긴 수상을 카이로에 급파, 사다트를 붙들고 회유하는한편 15년 우호조약을 조인토록설득했다。

이때 사다트가 이에응한것은 소련이 좋아서가 아니라 對이스라엘戰 무기확보를 위해서 다른 代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처를 아슬아슬하게 미봉한 양국관계는 수주후 사다트가 수단서 공산주의자인 하심·엘·아타소장의 쿠데타기도를 분쇄하는데 지원함으로써 끝내 회복되지못했다。사다트는 그때 수단에 공산주의국가수립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단호한 결의를 천명하고있었다。

이집트 소련사이는 72년에 결국 무기지원문제로 가장큰 위기를 맞았다。사다트는 2년동안 4차례나 소련을 방문, 신무기의 지원을 호소했으나 이에 만족할만한 응답을 얻지못하자 소련고문단 1만7천명의 철수를 요구한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지중해와홍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요지, 이집트에서 7년간 공을 여 쌓아온 영향력을 하루밤새 포기하려 하지는않았다。

73년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집트-이스라엘간의 평화협상이 익어가고 이집트가 서방으로부터의 무기구입을 모색하며 경제개방정책을 쓰자 소련은 사다트에 대한인신공격을서슴지않고 퍼부었다。

사다트는 76년 일방적으로 소련과의 우호조약 폐기를 선언했고 美·이집트·이스라엘의 캠프데이비드협정조인등에 분노한 소련은 이집트가 등뒤에서 아랍국들을 찌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다트는 소련의 앙골라, 이디오피아, 남예멘주둔등 그들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전진하는 것을 깊은 우려를 갖고 보던중 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소련의 침공으로부터 아랍、회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군의 군사시설확대했다。

또 이에대한 보복으로 카이로주재 소련대사관의 50% 감축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악화에도 불구, 양국은 완전단교조치는 서로 삼가고있다。

이번 경우도 소련이 어떤 보복을 취하더라도 단교는원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소련이 이집트를中東의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전략적 요충으로 생각하고있는 이집트의 입장에서도 양대 초강국의 한쪽과 완전 교류를 끊는것이 이익이되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俞奕根기자】

◇추방령받은 蘇大使 이집트정부로부터 15일 강제추방령을 받은 이집트주재 蘇聯대사 블라디미르·폴리아코프。【카이로15日AP=聯】

〝勞組、社會正義투쟁 代辯者〞
敎皇 전세계 가톨릭聖職者에 回勅

【바티칸시티15日UPI·AP=聯】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즉위이후 세번째로 15일 전세계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보내는 회칙을발표, 노조는『사회정의를위한 투쟁의 대변자』이며 가톨릭 교회가『진실로 가난한사람들의 교회가 되기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지원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요한바오로2세

교황은 재임35개월만인 이날 발표한 회칙에서 또 가난한 농민과 시민들의 생활개선을위해 제3세계에『급진적이고도 긴급한 변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99페이지 분량의 이 회칙은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등 양대이념체제에 대해 교황이 보여온 비판적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세계각국에대해 사유및 공공소유개념이 혼합된 경제체제를 구축할것을 호소했다。

怪漢들 바추카砲발사

유럽 美地上軍사령관 被擊때

西獨 검찰당국 蘇製로추정

【칼스루에(西獨)15日AP=聯】유럽주둔 미육군사령관 프레데릭·크로센장군의 방탄장치가 된 승용차에 괴한들이 발사한무기는 바추카포이며 이것은 아마도 소련제일것이라고 15일 서독연방검찰당국이 밝혔다。

검찰은 크로센장군의 승용차가 후미에 바추카·로키트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서독경찰은 사건현장으로부터 약2백m 떨어진 야산에서 바추카포발사대 안테나가 부착된 휴대용 송신기 소형텐트및 슬리핑백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8월31일 람슈타인 美공군기지 폭탄폭발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적군파관련자들에 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美피습사건에 우려 테러대비 保安強化

【워싱턴15日聯合=聯】미국은 15일 西獨에서 발생한 프레데릭·크로센 유럽주둔 미군사령관 암살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北傀軍駐屯 폭로 편집장 해고시켜 짐바브웨

【솔즈버리16日AP=聯】북괴군이 짐바브웨에 주둔해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바 있는 짐바브웨의 주간지 움탈리·포스트의 편집장 J·마이트랜드·쉬트와트 여사가 해고되었다。

쉬트와트여사는 15일 정부가 45%출자하고있는 짐바브웨신문그룹으로부터 오는 10월1일부터 해고될것 이라는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쉬트와트여사는 지난 8월7일자 움탈리·포스트지에 대규모의 북괴 군사요원들이 짐바브웨 동부 움탈리근처인 양가지역에 주둔해있다는 사실을 비판적인 사설과함께 보도했었다。

美、反核示威군중 체포
캘리포니아서 3백명核電침투기도

【아빌라비치(美캘리포니아)16日AP=聯】아빌라비치경찰당국은 사다리와 보트를 사용, 15일밤 새로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에 침투하려던 3백명의 反核데모군중을 체포했다。

7백명의 경찰병력및 경비원들은 이날 약 2천명에 달하는 데모군중이 23억달러를 들여 캘리포니아의 지형이험한 해안에건설된 다이어블로·캐년원자력발전소에 도달치 못하도록 저지했다。

美MX 미사일 100基備蓄건의

와인버거國防

【워싱턴16日UPI=聯】캐스퍼·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MX미사일 1백기를 네바다주에 있는 격납고 1천개소에 비축할것과 오는 90년까지 B52폭격기를 대체할 새로운 폭격기 2백50대를 생산할것을 레이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미국방성 소식통들이 16일 말했다。

뮤·엘런공군참모총장은 미공군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와인버거장관이 MX미사일로 방어할것도 아울러 제안했음을시사했다。

그런데 백악관소식통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이달말까지 새로운 전략핵무기 입법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와인버거장관의 MX배치 계획은 이 미사일 2백기를 유타주와 네바다주 지하격납고 4천6백개소에 분산 배치하자는 카터 前행정부의 계획을 축소한 것인데 한소식통은 레이건대통령이 MX미사일의 2개주 분산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카터 前행정부계획과는 다른계획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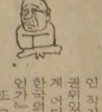
韓國의 老人

한국사회복지사업재단에서 조사한 「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이 딴나라에 비겨 대단하면서도 고독감을 느끼는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82년 유엔이 개최하는 「세계노인문제회의」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령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로서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즉 아들과의 동거율을 보면 우리는 51·7%인데 비겨 일본 41%, 태국 25·3%, 프랑스 3·5%, 미국 0·9%, 영국 0·5%로서 단연 많은 수치다。

근래 우리사회가 산업화시대로 탈바꿈하게 되는 과정에서 종래의 대가족제도는 급속히 붕괴되어 갔고 이에 따르는 핵가족의 확산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 되었다。한데도 조사대상의 절반이상이 아들과 동거하는 대가족제도 테두리속에서 아직 살고 있는가하면 [illegible] 그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는 해답은 오히려 28·5%로 가장 높은 것이다。



옛 대가족제도 아래에서의 노인이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따라서 권위와 힘을 아울러 갖춘 외경의 대상이었다。그러나 오늘날에는 동거 형식은 대가족제도의 형태를 취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생산적이고 무력해져 이른바 뒷방노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효도가 [illegible]이던 때와는 하늘과 땅의 차가 있다고 밖에 할수 없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를 찾은 어느 세계적인 작가는 한국의 노인들 처럼 권위있고 당당한 노인상을 세계 어디에서도 본일이 없다。한국의 가족제도는 어떤 형태인가 하고 놀란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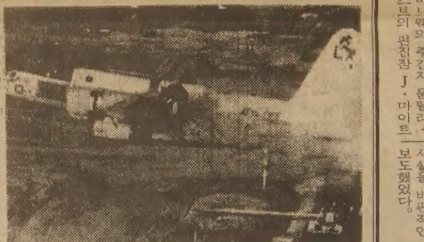
또 그뒤에 한국을 찾은 어느 미국 역사학자는 한국의 대가족제도야 말로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제도라고 감탄하고 갔다。

사실 우리의 전통은 노부모와 노인들을 곰찍이 위하여 모든 세상의 늙음들이 외롭거나 슬프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와 장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소외의 대상으로 고독을 씹게 되어가고 있는 참이다。

전통의 기반 위에서 노인복지를 다시 생각하여 그늘지지 않게해야할 과제라 하겠다。

非常着陸때 機體폭발 예방
美연방항공국 개발중

◇3천갤런의 보통연료를 적재한 록히드넵츈SP 2H기가 뉴저지해군비행기지에서 가진 실험에서 착륙중 충격에 의해 화염에 휩싸였다。



◇첨가제를 섞은 연료로 착륙한 동종의 비행기는 충격에도 불꽃의 생성이 억제되어 폭발이 없었다。

제트 연료에 「FM19」첨가
탱크 충격때의 폭발 억제
최초實驗은 성공… 보완점 남아

焦點外信

비행기 착륙중 일어나기 쉬운 치명적인 기체폭발을 예방할수 있는 제트연료첨가제 개발이 완결단계에 이르렀다。휘발유가 같은 이 첨가제는 실용화 되기까지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를 사용할 경우 폭발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것이다。

기체의 비상착륙때 폭발사고는 대개 연료탱크에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연료에서 고도의 가연성 안개모양 가스가 생겨 마찰로 일어나는 불꽃에 점화되어 일어난다。

美국가교통안전위원회(TSB)가 65~75년의 10년동안 조사한 통계에의하면 정기노선 여객기에 일어난 사고중 화재가 20%를 차지했다。이 기간중 비행기 화재사고 1백41건이 발생, 탑승객 7천43명중 1천8백43명이 사망했다。비행기에 화재가 나면 7명중 2명은 숨졌다는 말이 된다。

충격으로 인한 재난의 30%이상은 氣化된 연료의 폭발로 일어난 불꽃때문이라고 뉴저지州 아틀랜틱시에있는 연방항공국(FAA)기술센터 엔진·연료안전담당책임자 빌·웨스트필드는지적한다。

FAA주도아래 개발에 성공한「FM19」라고 불리는 분말첨가제는 최근의 실험에서 성공했다。

윤활유와 촉매제를 용해하여 만든 이분말을 비행기연료에 0·3~0·5%첨가하면 충격시 확산되면서 연료의 氣化를 억제한다。

FM19는 미국과 영국의 공동지원으로 영국의 임피리얼화학산업주식회사에서 개발했다。그러나 이첨가제의 성능이 완전히 보장되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것같다。

해군비행기를 이용한 첫실험은 성공했으며 곧 보잉720수송기를 이용한 실험을 하게된것이다。

빌·웨스트필드는『완벽한 자료를 얻고 모든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3년정도가 걸리며실용화 하기위해서는앞으로 7~8년이 더 걸릴것같다』고 말한다。【포퓰러·사이언스誌】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NIPPON VIDEO CENTRE

일본비데오센터

많은 한국테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주6일 OPEN

1993 DANFORTH AVE. TOR.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우드바인 서쪽 1 block)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 PM~4 AM / 토~일: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977-9734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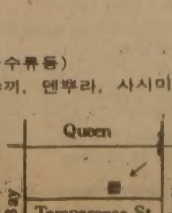
영업시간:

월~목 11:00AM~10:30PM

금요일 11:00A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 5:00PM~10: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368-2470

SHANGHAI RESTAURANT

메뉴: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화~금 11:30AM-12PM / 일요일 11: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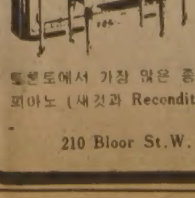
☎: 864-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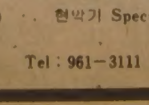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961-3111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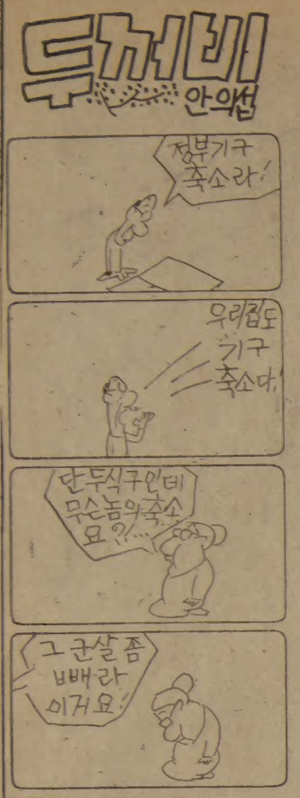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10시~7시

일요일: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534-2003



시골敎師 遠距離통근 너무많다

慶南北일대 列車·市外버스로 40~50km 예사

住居는 도시, 子女교육·下宿등 부담줄이려

授業시간대기에 급급

遠距離교사 70%이상인 학교 수두룩

【晉州·龜尾=聯】경남·북일대 시골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상당수가 대도시에서 원거리통근을 하고있어 수업은 물론 교외지도, 교재연구등 학생교육에 큰지장을 주고있다.

이들 원거리통근교사들은 大邱 晉州등에거주하면서 매일 시외버스와 열차편을 이용, 40~50km나 되는 장거리를 출퇴근하고있어 수업시간을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인데 차편이 여의치 않을때는 정상수업을 못하는 경우마저 자주있다.

이같이 일선교사들이 원거리를 통근하고있는것은 자녀교육문제와 하숙 자취등의 2중부담을 줄이기위한 때문.

경북漆谷郡倭舘邑 모중학교의 경우 38명의 교사가운데 92%가 넘는 35명이 30km가량되는 大邱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인근 新洞, 若木面내 초·중·고교 교사들도 대부분이 大邱에 주거를 두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晉州를 중심으로한 晉陽 山淸 宜寧郡등 서부경남지방에서도 40~70%의 교사가 원거리 출퇴근을 하고있다.

晉州에서 32km떨어진 山淸郡의 경우 관내 58개 초·중·고 6백68명의 교사중 40%인 2백67명이 晉州에서 통근하고있고 晉陽郡내 65개학교 7백28명중 70%인 5백10명이 원거리통근을 하고있는것으로 해당 교육청은 집계하고있다.

경남山淸郡 D고교 金모교사(47)는 2년째 晉州에서 통근을 하고있는데 2명의 자녀교육과 하숙비부담때문에 통근을 하지않을수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교사들이 학교소재지역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장거리통근에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학생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열차나 버스가 연착될때는 첫시간수업이 제대로 안되기 일쑤이다. 학부형 吳모씨(48·山淸邑塞洞)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줄아는 교사의 자세가요구된다』며 『교육당국도 연고지배치등 인사에 최대한 배려가있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감기患者 부쩍늘어나

全南道·大邱市內

高熱에 배아프고 구토증세 겹쳐

【光州·大邱=聯】최근 아침 저녁으로 심한 기온차이를 보이면서 전남도내와 大邱시내에서는 감기환자가 부쩍 늘고 있다.

16일 전남대부속병원을 비롯한 光州 大邱시내종합병원과 각개인병원에따르면 고열에 배가 아프고 구토증세까지 보이는 감기환자가 치료를 받기위해 줄을잇고있다.

또한 大邱시내 경대의대부속병원과 동산기독병원등 5개종합병원에도 평일보다 배가 많은 감기환자들이 치료를 받고있다.

西海岸 양식白蛤 떼죽음

舒川郡연안 13만坪

原因불명 80%폐사

【長項=聯】충남舒川郡 서해안의 13만여평에이르는 연안개펄에서 양식되고있는 백합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나 원인규명도 되지않아 어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舒川郡西面月湖里 庇仁面 船島里등지의 백합양식장 9만6천평에서 지난 7월말부터 원인을 알수없는 백합폐사현상이 번지기 시작한데이어 月湖里에서 남쪽으로 20여 떨어진 馬西面松石里 竹山里일대 백합양식장 3만9천평에서도 새끼조개들이 떼죽음하고 있다.

竹山里일대 양식장의 경우 1cm정도 크기의 새끼조개가 2~3cm정도 자란 지난8월초부터 개펄밖으로 기어나와 껍질을 벌린채 죽어가기 시작해 최근에는 떼죽음당한 새끼조개들이 양식장에 하얗게 깔려있다고 어민들이 말했다.

어민들은 이같은 폐사현상으로 西面 庇仁面 양식장의 백합은 80%이상, 馬西面 양식장에서는 50%이상이 이미 죽은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백합의 수확도 거의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庇仁개펄에서 양식을 하고있는 金璿圭씨(53·한양수산관리인)는 『올봄에 9만여평의 양식장에 32톤의 종패를 넣었는데 지난 7월말부터 집단폐사현상을 보이면서 8월들어 폐사율이 높아져 16일 현재 80%이상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폐사원인이 밝혀지지않는한 백합양식은 끝장』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같은 마을 黃起喆씨(42)도 『이웃에서 지난해 백합양식으로 소득을 크게올리는것을보고 전재산8백여만원을 들여 9천여평에 8톤의 종패를 양식장에 넣었다가 망했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이에 대해 舒川郡관계자는 『정확한 피해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곧 폐사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히고 『뚜렷한 대책을 세울길이 막연하다』고 말했다.

沃川공단 조성사업 白紙化

入住희망업체 한곳도 없어

【永同=聯】충북沃川중소시범공단조성사업계획이 단지로 지정된후 1년이 넘도록 입주희망업체가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가 沃川郡이 단지조성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지못해 계획이 백지화 될것 같다.

沃川郡은 지난해 6월24일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앞으로 조성될 중소시범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공해방지시설등을 공동으로 갖추는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진흥자금 12억원을 융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沃川郡伊院面乾榛里일대 12만6천평을 중소시범공단지역으로 지정했었다.

공단조성사업계획이 불과1년여만에 무산되자 그동안 고용증대및 발전등의 기대에 부풀었던 이지역 주민들은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常習투기꾼은 14명

한사람이 44家口 무더기 당첨도

福夫人 사건발표 一

부산華明동 주공임대아파트 투기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시경은 16일 이미 분양된 아파트 1천8백가구중 1백74가구가 金玉子씨(31·경기 安養市 주공아파트307호)를 비롯한 14명의 상습투기꾼에 의해 부정당첨된 사실을 밝혀내고 金씨등 8명을 검거하는한편 15가구분에 부정당첨된 全正씨(39·釜山鎭區堂甘3洞659)등 6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검거된 金씨는 44가구나 부정당첨, 투기자중 가장심한 투기행위를 한것으로 드러났고 金씨를 비롯한 13명의 투기자들도 2가구에서 20가구까지의 아파트를 부정당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자▲金玉子(31·여)‖44가구▲鄭汀煥(61·경기도 安養市石水주공아파트4 0 1호)‖6가구▲許春男(36·安養市飛山洞4 1 5)‖18가구▲韓泰宗(41·부산中區寶州洞42)‖13가구▲金永信(47·부산北區萬德洞1 블록5호)‖13가구▲李泰男(37·부산東萊區蓮山2洞1 456의1)‖21가구▲權鏞宣(56·釜山鎭區開琴2洞6 33의21)‖2가구▲李南台(39·부산南區阿峴1洞41 1번지59)‖가구분주선

◇한려수도관문인 忠武市의 시외버스터미널. 포장도 안되고 대합실도작아 승객들이 악취가 풍기는 변소옆등에서 대기하느라고 애를먹는다. 【忠武=韓隆기자찍음】

忠武市民이 창피한 市外버스 터미널

길바닥은 진흙탕, 화장실불결, 待合室은 10坪뿐

새 터미널建設 設計조차 못해

한려수도의 관문 忠武市에 버젓한 버스터미널하나가 없다. 포장도 안되고 대합실마저 협소하기 짝이없는 6백평짜리 임시주차장에는 하루에 3백여대씩 드나드는 시외버스와 忠武市를 찾는 하루 5만이 넘는 외래객들이 몰려 큰불편을 겪고있다.

忠武市는 지난77년 霧田洞 6천6백여평부지에 지상2층 지하1층의 현대식 대합실을 갖춘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축하기위해 北新灣일대 2만여평을 매립하고 이일대 1만평을 상가및 주택지로 공매하기까지 해놓고 터미널부지 6백여평을 가진 부지매입 협의를 하고있으나 4년이 넘도록 협의가 이뤄지지않아 터미널건립 설계조차 하지못하고있다.

현재의 北新洞 임시정류장은 6백평의 주차장이 포장이 안돼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고 30평의 건물은 거의가 9개운수회사의 매표실과 사무실로 쓰여 승객을 위한 대합실은 10평도 못돼 불과 몇십명이 이용할수 있을뿐이다.

이때문에 하루 평균 5만을 헤아리는 승객들은 악취가 풍기는 화장실 주변이나 무질서한 버스 행렬속을 쫓겨다니며 차를 기다려야하는 실정이다.

忠武市 관계자는 霧田洞 터미널부지중 7백6평을 가진 지주 姜世浣씨(30·晉州市七岩洞)·姜世玫씨와 현 北新洞임시주차장 대표 辛建洙씨간에 매수협의가 늦어져 이달들어 문제의 7백6평을 수용했다고 밝히고 올해안에 霧田洞터미널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忠武=申鉉鐵기자】

30代女人 凶器맞아

內緣의 남편집에서

경찰 痴情사건搜査

【東海=聯】15일하오4시30분께 강원도 東海市사문동산97 李재근씨(36)집 안방에서 李씨의 내연의 처 金錦子씨(32)가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된채 신음중인 것을 李씨의 장남 李모군(9)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李군에 따르면 이날하오3시께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으나 방문이 모두 열려있고 인기척이 없어 안방에 들어가 보니 金씨가 머리와 얼굴등을 흉기로 마구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된채 엎드려 있어 이웃주민 宣모씨(30)에게 연락, 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이 위독하다는것.

경찰은 지난 4월 李씨가 본처 金모씨가 신병으로 죽은후 金錦子씨를 집안에 들어와 살게 했으나 없어진 금품이 없는 것으로 미뤄 일단 치정에 의한 살인미수사건으로 추정하고 범인수사에 나섰다.

非行청소년

檢察선 起訴유예제도活用석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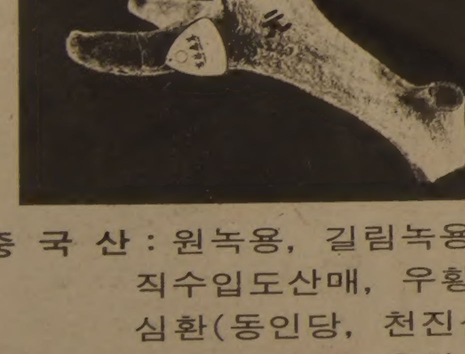
學校側선 除籍·自退종용강행

【光州·大邱·長興=聯】검찰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계도하기위해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활용, 구속청소년을 풀어주고 있으나 이중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 돌아가 제적 또는 자퇴를 종용받고 학업을 계속하지못하고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가을맞이대세일

녹용을
잡수실계절이
왔읍니다!



중국산 : 원녹용, 길림녹용, 직수입도산매, 우황청심환(동인당, 천진산, 남경), 사향, 우황, 편자광(간장치료), 해구신, 십전대보탕, 경명주사

캐나다산 : 웅담, 산삼(산지에서 직접수집), 해구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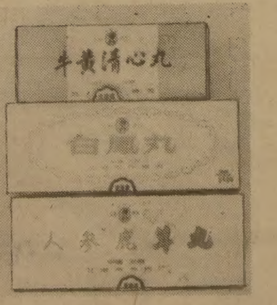
!! 염가판매 !!

Oster

OSTER프라이판
SUPER GRILL
REG. $53.95
SALE. $29.95

비타민및
로얄젤리!

구심, 호골환


동인당청심환

게부랄T, 비타민E

일본산 : 로얄젤리, 로얄젤리원액(미제도입), 간장보호제, 간장약, 비타민E, B콤푸렉스, 게부랄T, 고단위종합비타민, 어린이비타민

기 타 : 신경통특효약, 당뇨병약, 기응환, 구심, 용각산, 위장약, 간유구, 정력제, 해구환, 소화제, 무좀약, 호랑이기름연고등

★탈모증 특효약 입하
머리가 빠져서 고민하십니까?

뒷편에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십시요

미도파 MasterCard VISA
454 BLOOR ST. W. TORONTO ⟨B⟩536-1692 ⟨R⟩245-3539

韓·美첫學術會議

修交 百돌 기념 내달29일부터

高大·美컬럼비아大 공동주최

발표자20명, 내용 冊으로출판

◇스나이더씨 ◇김준엽교수 ◇한배호교수 ◇임희섭교수 ◇이상우교수

韓美修交1백돌을 기념하는 첫학술회의인 韓美공동학술회의가 高麗大 아시아문제연구소(소장 金俊燁)와 美컬럼비아大 東아시아연구소(소장 제임즈·몰리)의 공동주최로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美메호텔에서 열린다.

두대학 연구소가 79년부터 2년동안 준비해온 이 회의의 주제는 「韓美관계1백년-韓美修好조약체결1세기를 기념하여」.

이번회의는 지난 79년初에 구소장과 당시 컬럼비아大 東아시아연구소 커티스소장과의 합의에따른 것이다. 당시 韓美修交1백주년기념 학술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두 연구소는 경비를 반씩부담한다는 원칙아래 지금까지 제반준비를 해왔다.

두나라 주제발표자들은 그동안 발표자료를 얻기위해 2주간씩 상호방문, 인터뷰를 하는등 상대국 연구에 열을 올려왔다.

발표자는 각각10명씩 도합 20명. 金俊燁소장은 「이번회의는 한미수교 1백년을 뒤돌아보고 한미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두연구소는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을 책으로 출판, 양국에 소개할 계획도 갖고있다. 이것은 두나라에 상대국연구의 붐을 고조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회의의 양측발표자와 발표분야는 다음과 같다.

◇한국측=▲韓美修交 1백년의의(金俊燁) ▲韓美우호관계 1백년에 대한 역사적 고찰(劉永益·高麗大) ▲세계공동체속의 한국(韓昇助·高麗大) ▲남북한관계(李相禹·西江大) ▲韓日관계와 미국의 역할(安秉俊·延世大) ▲한국과 중공(崔昌潤·국방대학원) ▲韓美경제관계(鄭寅燮·서울大) ▲韓美사회문화관계(林熺燮·高麗大) ▲장래의 전망(韓培浩·高麗大)등

◇미국측=▲동북아시아안보환경(제임즈·W·몰리) ▲장래에의전망(제럴드·L·커티스) ▲韓美사회 문화관계(윌리엄·아트·포토맥협회 이사장) ▲韓美안보관계(노먼·D·레빈·랜드연구소 연구원, 리처드 스나이더 전주한미국대사 공동발표) ▲미국과 한국통일문제(미카엘·L·바튼 컬럼비아大) ▲한국 중공 소련(토머스·P·번스틴, 엔드·J·네이선 이상 컬럼비아大) ▲세계경제속의 한국(케리 섹슨 하우스 미시간大)등.

한국, 국제科學史聯에 加入

우리나라가 국제科學史·科學哲學연맹에 회원으로 가입됐다. 지난 26일부터 9월3일까지 루마니아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제16회국제과학사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全相運·宋相庸·朴星來·金永植교수등은 한국의 가입신청에 소련등공산국가까지찬성, 투표를해 회원으로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사회의에는 30여국에서 1천8백여명의 학자가 참석했는데 북한도3명의 대표를 파견했다.

제17차 국제과학사회의는 85년 미국캘리포니아 버클리大에서 열린다.

延世大 교육학과 創立31돌 학술제

延世大교육학과창립31주년기념학술제가 18·19양일간 경영대강당과 성암관에서 「교육과학대학의 필연성과과제」와 「평생교육의 기초와과제」란 주제로열린다.

주제발표자는 헤르만(뒤빙겐大), 김인회(延大), 오인탁(延大), 이성호(延大), 한준상교수(延大)이다.

"쿵-순간, 앞바퀴 주저앉아"

KAL機 엔진고장 담부수고 胴體·날개 파손

비상탈출하다 12명負傷 한국인은 4명

【마닐라16일=金幸勝지국장】승객과 승무원 3백78명을태운 대한항공소속 보잉747 점보여객기(기장金榮善·46)가 15일하오11시15분께(한국시간) 중간기착지인 마닐라 국제공항에 기착했다가 다시 이륙하려는 순간 엔진고장을 일으키면서 기체가 활주로에서 약5백여m벗어나 공항울타리를 들이받고 풀밭에 처박히는 사고가 발생, 승객11명과 여승무원1명등 모두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여객기는 15일 하오5시金浦공항을떠나, 스위스취리히로향하던대한항공903편으로 이날하오10시15분 마닐라에 기착, 승객 1백20명을 더태우고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에서 시속2백80㎞로 활주중이었다. 점보기는활주중 4번 엔진에 스톨현상(엔진고장의총칭)이 일어나, 기장金씨가 이륙을 포기하고 브레이크를밟자 기체가 가속을 이기지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바퀴4개가 터지고 공항울타리를 부수면서 바퀴와 엔진이 풀밭에 처박혀 동체와 오른쪽 날개일부가 파손됐다.

부상자중 鄭常浩씨(73·한의사·전북全州市殿洞1街18의6)등 한국인4명은 국제회의에참석차 여행중이었으며 나머지는 필리핀인3명, 일본인3명, 독일인 2명등인데 부상자들은 모두 마닐라공항근처 드·산호안·베디오스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한국인 부상자 4명중 黃鍾煥씨는 우측발목골절, 鄭常浩씨는 척추부분탈골, 李복례씨는 허리부분에 찰과상, 金일용씨는 우측발목골절상등을입었다.

대한항공은 사고직후 승객들을 모두 마닐라 빌리지호텔에 투숙시키고 16일 하오6시 대체비행기편으로 나머지 승객들을 목적지로 보냈다.

승객 黃의득씨(48·대한통운근무·서울銅雀區銅雀洞56)는 「비행기가 이륙을위해 활주중 서서히 기수부분이 들리는듯 하다 속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비틀거렸다. 잠시후 「쿵」 소리와 함께 앞바퀴가 주저앉는것 같았다」고 사고순간을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비행기가 비틀비틀거리며 활주로 끝까지 진행하다가 철책과 콘크리트 담장을 부수고 고속도로변의 습지로 굴러가 정지했다는것.

비행기가 담장을 부수면서 전선을 끊었기때문에 공항일대가 한때 암흑에 휩싸였다.

탑승객들은 비행기가 멈추자 승무원들이 서둘러편 4개의 비상미끄럼대를 통해기체밖으로빠져나왔으나 비상탈출과정에서 12명이부상했다.

◇한국인 부상자

▲鄭常浩 ▲김일용(45·남·부산北區鰻浦洞3) ▲이복례(62·남·경기安養市飛山洞566) ▲黃鍾煥(59·남·서울鍾路區通義洞77)

전국 中高배구

城都高 決勝진출

慶北體高·文一高승자와 爭覇

男高部

男中은 仁昌·文一 결승에

추계 전국중고 배구연맹전 남고부 패권은 城都(성남)高와 文一高-慶北體高 승자의 대결로 압축됐다.

16일 장충체육관서 벌어진 대회3일째 남고부 준결승서 城都高는 공격과블로킹서 맹위를 떨친 1년생 洪海天의 활약과 끈질긴 수비력을 바탕으로 강호 仁昌高를 3-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남중부 준결승전서 仁昌中과 文一中은 慶北體中과 仁荷附中을 각각 2-0으로 완파하고 결승서 맞붙게 되었다. 여중부선 富平女中과 江陵女中, 두 지방팀이 결승에 올랐다.

풀리그로 벌어지는 여고부 경기에서 江陵女高는 金玉順등이 활약하는 中央女高를 3-1로 물리쳐 中央과 함께 1승1패씩을 기록했다.

◇제3일전적

▲남고부준결승

성도고교 3 (15-7 15-10 15-12) 0 인창고교

▲여고부리그

강릉여고 3 (15-9 9-15 15-12 15-6) 1 중앙여고

(1승1패) (1승1패)

▲남중부준결승

인창중 2-0 경북체중

문일중 2-0 인하부중

▲여중부준결승

부평 2-0 한양

강릉 2-0 세화

서라벌·景城高2승

中高 아이스하키

제1회 서울특별시장배쟁탈 서울시중고아이스하키 대회 이틀째 경기가 16일 東大門실내링크에서속행, 서라벌高와 景城高는 光城高·慶熙高를 7-4, 5-3으로 각각 물리치고 2승씩을기록, 고등부 A조서 나란히 선두에 나섰다.

◇제2일전적

▲고등부A조

서라벌고 7 (2-2 3-2 2-0) 4 광성고 (2승) (2패)

경성고 5 (4-2 1-1 0-0) 3 경희고 (2승) (2패)

大學배구 聯盟戰에 外國팀이 番外경기

문교부장관기 쟁탈전국 남녀우수대학 배구 연맹전이 7개팀(남대6)이 출전한 가운데 17일 西江大체육관에서 개막된다.

全北 仁荷 京畿 成均館 서울 西江大등 6개팀이 출전하는 남대부에는 현재 서울에서 전지훈련중인 쿠웨이트및 사우디아라비아 남자국가대표팀도 참가, 국내대학팀과 매일 한게임씩 번외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壯士씨름 18일開幕

【釜山=聯合】제18회 대통령

實業야구 後期1차

우수投手에 李潤燮

打擊賞은 禹京夏 차지

실업야구 후기1차리그가 16일 仁川공설운동장서 폐막, 6승3패로 우승한 韓一銀行의 좌완 신예 李潤燮이 3승, 방어율1·09로 우수상을 차지했다. 李는 1차리그서 33회 4실점 4자책을 기록했다. [illegible] 禹京夏는 35타수14안타, 타율 4할로 타격상을, 李光玉(상은)은 대회통산 2백호홈런으로 특별상을 받았다.

1차리그 최종일 경기서 星武는 李光殷의 5회말 결승 홈런등 4안타로 7안타의 農協을 2-1로 물리쳤다.

나의 이력서

윤치영 ㊾

내가 反託운동을 계기로 右翼청년들을 지휘, 左翼에 대한 실력 행동에 나서자 美군정청은 이런 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특히 하지는 「깡패두목」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李承晩박사에게 나를 물리칠것을 강력히 권고하기까지했다.

나 개인에 대한 이러한 비난과 左右의 적들은 아랑곳없이 政局은 强大國의 결정대로 흘러가고있었다. 모스크바 三相會談은 한반도에 대한 信託통치를 결의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한 美·蘇共同委의 설치까지 결정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배척운동에 대한 李박사 설득이 어려워지자 軍政廳으로 하여금 공산당을필두로 韓民黨, 國民黨, 新韓民族黨등의 대표를 불러 신탁통치의 내용과 목적에대한 설득작업을 했는데 그에 의하면 信託이란 美·蘇공동위를 열어 각정당단체로 하여금 임시정부를 새로 조직케하고 그조직내용을 美·英·中·蘇의 4大國위원회에 제출, 승인을 받는다는 案이었다. 하지는 한달이면 臨政을 세워 信託을 끝낼수 있다는 甘言으로 설득했지만 李박사와 金九선생은 鐵壁不動이었다.

왜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주국가를 세워야지 大國의 보호하에 臨政을 만드느냐는것이었다.

美·蘇共同委

李박사는 信託과 美·蘇공동위에 의한 臨政수립은 우리민족을 강제로 공산화 시키는 첩경이기때문에 민족의 궐기를 촉구했다. 이때 李박사는 하지보다 美국무성과 미국여론이 중요하다고판단, 워싱턴에있는교포들에게 반대시위를 벌이게하는한편 美군정청에 근무하던 한국인들이 모두 辭職토록 만들었다.

그러나 美·蘇공동위는 예정대로 三相회담결정의 진행에 들어가 46년1월16일 예비회담을 가졌다.

韓半島에 信託統治 펴기위해 소집

끝내決裂…한국問題 유엔總會 상정

大勢가 이렇게 돌아가자 韓民黨도 美·蘇공동위 참여를 公言한후 雪山張德秀를 보내 李박사설득작업을 벌였다. 韓民黨의 입장은 『아무래도 미국사람의 조력으로 일을 해야하니 美정부 의사에 따라야한다』는 것이었다.

李박사는 이런뜻을전하는 雪山에게 『美국무성 정책은 件件事事에 이용당하고있다. 나는 미국에 있을때부터 美국무성의 容共性을 알고 싸웠다. 美·蘇공동위는 蘇에의해 조정될것이 뻔한데 韓民黨은 왜찬성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런데도 雪山이 參與를 종용하자 李박사는 불같이 노해 방바닥을 치며 雪山을 향해 추상같은 호통을 쳤다. 州시절부터 맺어온 애국적우대관계는 끊어졌고 韓民黨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三相결정에 대한 李박사의 태도가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에 나와 휘하의 애국청년들도 바빠졌다.

◇李承晩박사·金九선생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美蘇共同委 예비회담이 46년1월16일 덕수궁에서 열렸다. 중앙은 개회사를하는 하지중장。

나는 美·蘇共同委가 열리는 덕수궁으로 李哲承 金斗漢 潘星煥등 애국청년들을 보내 소란을 피워 회담을 방해토록했다. 이들은 곧장 덕수궁으로 들어가 반대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벌였으며 이를막는 미군헌병과 충돌하기도했다. 그러나 공동위는 착착 작업을 진행,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란 타이틀을 정하고 기구·조직·臨時憲章등에 관해서 李박사, 金九선생, 趙素昻씨등을 집행위원으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공동위가 국내의 정당·사회단체의 동조를 받아 臨政수립을 위한 구체적내용까지 토의하게되자 소련측은 본격적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즉 信託을 반대하는 정당·사회단체는 일체 공동위의 협의대상에서 배제돼야한다고 나온것이다. 朴憲永·呂運亨의 공산당등 좌익만이 臨政을 세울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때 美·蘇공동위가 협의를 위해 접수한 정당·사회단체의 수가 5백여개에 등록된 당원·회원수가 南北韓을 합친 인구보다 3배정도 많은 喜劇을 빚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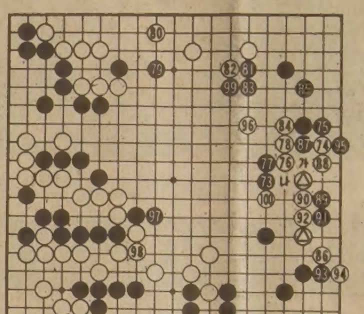
당시의 분위기는 곧 공동위와 함께 金奎植·呂運亨의 左右合作의 성공이 결정적이라는것, 따라서 金奎植이 새정부의 대통령이 될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 金의 三淸洞집은 門前成市를 이루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左傾색채가 많았던 당시 매스컴의 영향력이 만든것이었다.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李박사는 金九주석에게 最高政務委員會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너희는 너희들대로하라. 우리나라는 우리마음대로 하겠다』는 美·蘇에 대한 실력과시였다. 이렇게 만들어진것이 李박사를 의장으로 獨立의 초석을 세우는데 큰공을 한 民主議院이며 나는 사무총장의 重責을 맡았다.

한편 共同委는 47년5월20일 제2차 회담을 다시 열었으나 참가·협의대상단체에 대한 美·蘇양국의 異見으로 무기연기 되었고 같은해 10월20일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총회에 상정하자 자연히 해산되고 말았다.

제⑬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 第5譜 73~100 (각5시간)



白(7段) 徐奉洙 黑(6段)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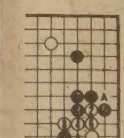
黑대마를 어이없이 죽여버린 徐6단은 우변白스표쪽에 총공격을 개시했다. 문자그대로 필살의 기백.

徐6단은 이미 승리를 자신하고 여유가 생겼는지 도처에서 소극적인면을 보이며 반격보다는 수비에 급급했다.

하기야 黑도 취약부를 남기게하는 강공인때문에 언제 그허를 찔릴지 모르지만, 본보 白100까지의 과정에서 白이 오히려 알찬 장면을 연출한것은 徐7단 답지않는 국후편이다.

黑73. 요원한 얘기지만 경우에 따라 98자리를 끊으려는 복선인데 徐7단은 상관을 안하고 白74, 76으로 제자리 삶을 피했다. 일부에서는 『모양사납게 살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白74로는 참고도와같이 白2이하8로 시원스럽게 탈출해야 되잖느냐』는 말도 나왔다. 이 순서에서 黑3을 5에 젖히면 白3, 또 黑3으로 7에 뻗으면 白1로 A로 젖혀 사는 수가 있다.

"白을 몽땅 잡아야한다"



黑은 어쨌거나 白을 몰고늘어져야할판. 黑79, 81로 간접적인 공격을 피할때 白은 80에후퇴해놓고 86으로 『살려만달라』며 89, 91로 白진뽁판에 擬態를 투입했다. 다음 黑이 「가」자리를 찌르면 白은 별수없이 「나」에 잇고 74, 88두점을 버린채 도망가야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본진」을 포기하고 白96으로 활로를틀기 시작했는데 徐6단은 그것만으로는 승산이없다하여 黑97, 99로 「반격」을 배치해놓고 白을 몽땅잡을 요량. 자 白100으로 탈출을 시도한 다음이 어렵다.【一凡】

주간女性

66년 汶山里고아원 收容 박복숙孃을 애타게 찾아

美國人 멜·챗맨씨

지난 66년 경기坡州郡汶山里에서 주한미군대위로 근무하던 멜·챗맨씨(MEL CHATMAN)가 당시 汶山里고아원에 수용돼있던 박복숙양(사진·당시 10세·현재25세가량)을 애타게 찾고있다.

현재 美국무성에 근무하고있는 챗맨씨는 당시 汶山里고아원설립을 적극도왔고 원생인 복숙양을 특별히 돌보아줬다는것.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으음음… 사과파이가 언제쯤 될까?"

"당신이 지붕수리를 끝내는 대로요。"

"설마 음식으로 날 매수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그렇지?"

"아니야。마누라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었어"

流星의 賦 〈185〉

李炳注作 李友範畵

明暗 ⑤

부부의 도를 행하면서 부부일 순 없는 이남녀의 결합이란 어떤 것일까.

숙탐이 남의 정처(正妻)가 될수 없었던 것은 말을 하지 못하는 불구(不具)의 몸이기 때문이 아니었고, 무성무적(無姓無籍)의 신세이기 때문이었다.

그 사정이 어떤 것인진 몰라도 무소불능(無所不能)한 권세를 가진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 몸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을 보면 측은하기 짝이 없는 신세라 아니할 수 없다.

무녀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계남과 숙탐의 상견례가 있고 피차의 헌수가 있은뒤 식은 끝났다. 이영이 정중하고도 간곡한 축복을 한뒤

『이집과 나의 누이동생 숙탐은 오늘부터 흥공의것이오』

한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자 중로의 하인부부와 숙탐의 시봉을드는 하녀, 이름을 삼월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달빛이 비치고 있는 뜰에 엎드려 흥계남에게 절을 올렸다. 오늘밤부터 우리의 운명은 모두 서방님께 바치옵니다 하는 뜻이 그 절엔 깃들어있을 것이었다.

삼경이 거의 지났을때 계남과 숙탐은 신방에 들었다. 원앙의 그림이 수놓인 이불이 한편에 깔려있고, 한쪽벽엔 장안사계절(長安四季節)을 그린 병풍이 둘렸는데 쌍으로된 촉대에 촛불은 움직이지 않았다.

바깥에 바람은 자고 풀벌레들도 숨을 죽인듯 고요한데 신랑과 신부의 가슴만이 격렬하게 고동하고있었다.

계남이 겨우 한말은

『꿈만 같소이다』

그러자 숙탐이 붓을 들어 흰 종이에 다음과 같이 썼다.

『結髮爲夫妻(결발위부처) 恩愛兩不疑(은애양불의)』

성인(成人)이 되어 부부가 되었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의 글이었다.

계남이 감격해서 말했다.

『은혜는 하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사랑은 밤이 주는 것이오。우리 이 인연을 소중하게 합시다』

다시 숙탐이 붓을 들었다.

『與天地無窮(여천지무궁)』

천지와 더불어 무궁하리라는 다짐일 것이었다. 계남이 숙탐의 손으로부터 붓을 받아 책상위에 놓고 숙탐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외의(外衣)를 벗기고 내의(內衣)만 남았을때 버선을 벗겼다. 숙탐의 머리가 계남의 가슴에 기울어졌다. 계남은 숙탐을 안아 뉘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운우(雲雨)의 정사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짙게되고 비와 더불어 울고 바람과 더불어 노래 부르고 자연을 닮아 진행되었다.

계남은 숙탐에게 자기의 사람을 보고 숙탐은 계남에게 자기의 숙명을 보았다.

『내가 이 세상에 지킬것을 비로소 얻었소』

황홀한 감동에서 깨어나며 흥계남이 한 말이다. 숙탐의 얼굴에 묻는 표정이 있었다.

『그것은 당신이오』

숙탐의 화사한 얼굴이 행복하게 빛났다. 손가락으로 계남의 등에 쓴 글은 『나두요』하는 것이었다.

이밤 달은 중천에 교교하게 밝았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공 고

한인회 신임회장단은 함께 봉사할 각부서의 부장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기에 교민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총무부 : 신영식,	문화부 : 장기철
재무부 : 김웅일,	차장 : 옥성빈
홍보출판부 : 구본모,	체육부 : 송기선
청소년지도부 : 서만수,	섭외부 : 명노길
부녀부 : 김옥자,	기획조사부 : 이장성

토론토 한인회 회장 : 박인순

부회장 : 고순복

장영채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식 중국음식 벵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53-0684

영업시간 ● 월~토 9 : 30AM~6 : 00PM ● 월~토 11AM~7PM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